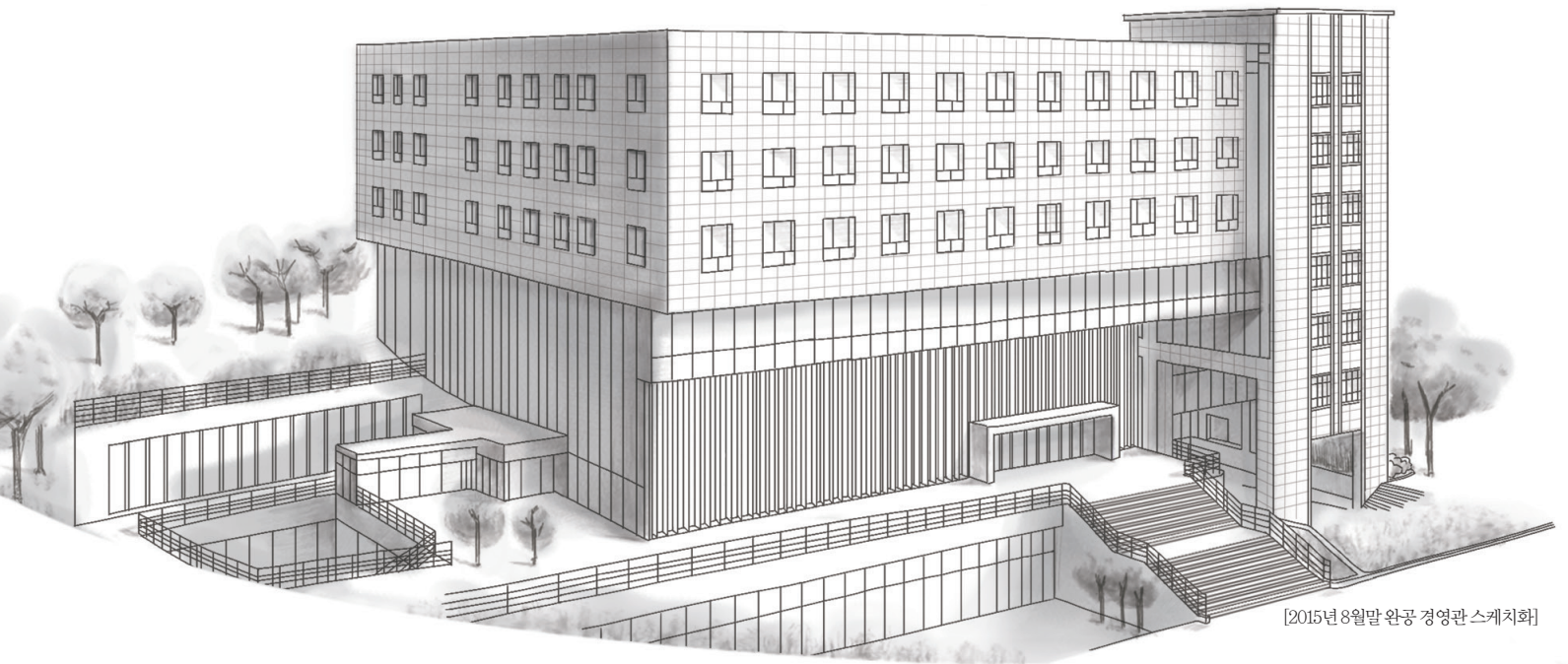


2014 ANNUAL REPORT

연세경영 2014학년도 연차보고서

100 YONSEI
19 20 SCHOOL OF
15 15 BUSINESS
Change the world, Lead the future



[2015년 8월말 완공 경영관 스케치화]

연세경영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이 책을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연세 건학정신 및 연세 이념 연세대학교를 움직이는 힘!

연세 건학정신

연세대학교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말씀(요한복음 8:31~32)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한다.

연세 이념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이다.

연세인은 거래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또한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우리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힘껏 발휘한다.

YSB 비전 및 미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YSB

VISION

YSB, the First & the Best

세계적 수준의 경영교육/연구기관

MISSION

Creative Leadership

탁월한 교육과 선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의 육성

CONTENTS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

미래路, 함께

동문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글로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연세경영의 크고 아름다운 발걸음

손잡GO, 함께

다양한 동문 교류와 협력 활동을 통해 함께 손잡고 발전하는 연세경영!

세계路,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으로 발전하는 연세경영 각 프로그램별 2013학년도 빛나는 발전상을 만나봅니다

06	연세경영이 걸어온 100년의 길	
08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100년	
10	연세경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다	
12	100주년을 새기며 새 미래를 열다	
<hr/>		
14	경영관 건축	연세경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신축 경영관
18	인터뷰 I	꿈꾸고 질문하는 미래의 세계 경영인들에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경영 81)
20	인터뷰 II	미래 교육의 시스템으로서 경영관을 기대한다, 양주현 S&S Inc. 회장(MBA 1977)
21	인터뷰 III	경영관 신축 기금은 AMP의 값진 경험의 보답, 김법용 벽성이앤지 대표이사(AMP 77기)
22	인터뷰 IV	'캠페인' 5,000명 달성은 연세경영의 자존심, 박영렬 교수
24	인터뷰 V	77기의 열정은 AMP 40주년의 의미다! 고종태 리젠시코리아(주) 대표이사(AMP 77기)
25	인터뷰 VI	부부가 함께 연세경영 사랑을 실천하다, 강익철·김경진 부부
26	인터뷰 VII	모든 변화는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도원식 학생(경영 09)
27	Class Gift	신입생들을 위한 기부 문화 전통, '2015 Class Gift'
28	기금현황	경영대학 기금 현황
30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숫자로 보는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hr/>		
32	동문과 함께	'연세경영, 새로운 100년의 시작' 행사
33	동문과 함께	대학생활의 큰 등대를 만나는 학부 신입생 동문 멘토링
34	동문과 함께	함께 해서 더욱 아름다운 2014년 동문 초청 행사들
35	동문과 함께	친구야 반갑다... 오랜만에 찾은 모교, 재상봉 행사
36	동문과 함께	유연한 사고와 자기계발을 위한 탐구, YSB A/S 특강
<hr/>		
38	Global Reputation	세계로 뻗어가는 Global YSB
40	YSB Education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42	학부	새로운 시대의 리더 양성과 창조적 가치 탐구
44	MBA	50년을 이어온 글로벌 리더의 산실
46	석·박사	눈부신 학문적 성과로 연세경영을 빛내다
48	AMP	최신 경영을 통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
50	상남경영원	해외가 주목하는 최고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
52	경영연구소	21세기 경영 사회를 연구하고 예측하다
54	Faculty & Research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와 우수한 인재 배출의 원동력
57	연세경영 교수진	
<hr/>		
58	Operational Highlights	
60	연세경영 기부자 명단	
70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71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참가 신청서	

발행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전화. 02-2123-5445, 팩스 02-2123-8639, 이메일 ysb-edo@yonsei.ac.kr)
 기획 및 편집 엠큐브파트너스 마케팅팀 02-548-1601 | 인쇄 갑우문화사
 2014 Annual Report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가 10,000원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연세경영

연세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기운을 뿜는 봄, 힘차게 도약하는 연세경영의 소식을 2014 Annual Report 발간을 통해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1915년 출범한 연세경영이 탄생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100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신기원의 시대였습니다. 연세경영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경영학을 선도한 것은 물론, 이제는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경영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연세경영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에 4-5년 연속 세계 100대 MBA에 선정되고 있으며, 경영학 교육 품질의 척도인 세계 양대 인증인 AACSB, EQUIS, 그리고 한국 KABEA 인증까지 획득한 국내 유일의 경영대학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연세경영은 올해 매우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맞이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8월에는 연세경영의 오랜 숙원이었던 최초 경영대학 건물 완공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동문과 학부모 등 다양한 기부자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탄생한 최첨단 건물에서 공부하며 연세경영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연세경영은 국내외 경영학자와 경영 리더들을 초청해 다양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세경영 100년사 발간과 재학생·동문을 아우르는 행사를 마련을 통해 100주년을 뜻 깊게 보내고자 합니다.



지나온 시대는 현재의 거울이며 또한 미래의 이정표입니다. 연세경영은 지난 100년간 도전과 혁신의 두 날개를 펼치고 끊임없이 비상했습니다. 이제 다가올 100년 동안 연세경영은 세계의 중심에 서서 더욱 크고 눈부시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탄생 100주년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연세경영을 위해 교수와 재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김 동 훈

연세경영이 걸어온 100년의 길, 그 이정표

연세대 경영대학이 2015년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0년간 연세대 경영대학은 대한민국 경영학을 선도한 리더로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리고 2015년, 이제 연세대 경영대학은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100년을 준비한다. 다시 품을 대한민국 경영의 100년, 연세대 경영대학이 끌고 갈 거대한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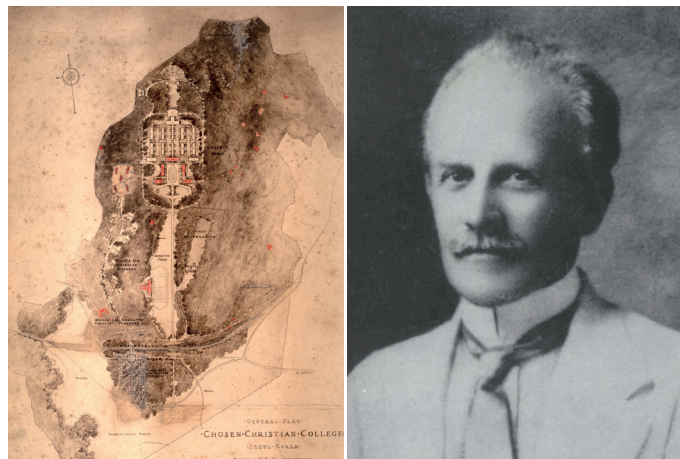
경영학 역사의 발판이 된 '상학의 시기'(1915년~1945년)

우리나라 경영학 역사의 근원은 1915년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내에 설립된 상과이다. 당시 상과를 포함하여 문과, 수물과, 농과, 신과 5개 과로 시작하였다. 이후 1917년에는 한국 유일의 전문학교인 사립 연희전문학교로 발족하였고, 1923년 교명이 연희전문학교로 바뀌었다.

1919년 3월 첫 졸업식에서 상과 졸업생 10명(1917년 상과 1회 입학생은 14명)을 최초로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방될 때까지 954명이 상과를 졸업했다. 경영학이란 명칭이 등장한 것은 교과과정 중의 하나로 경영경제학이 교과목이 된 1935년의 일이다. 하지만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우리말로 된 교재가 없었고 우리나라 학자에 의한 연구도 활발하지 못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1945년 해방까지는 우리나라 경영학 역사의 발판을 이루는 상학의 시기라고 살펴볼 수 있다.

광복과 함께 '경영학'의 첫발을 내딛다(1946년~1950년대)

연희는 창립 당시부터 기구와 조직이 대학 규모로 출발했으나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전문학교에 머물렀다. 1946년 8월 15일 미군정



언더우드역. 1917년.

초대교장 원두우(재임기간 1915.4~1916.10)

청의 인가를 얻어 상학원, 문학원, 이학원, 신학원 4학원 체제의 연희대학교(Chosun Christian University) 종합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당시 상학원은 상학과 180명, 경제학과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57년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병해 교명을 연세대학교로 인가받아 새로운 역사와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1957년 ICA 기술원조에 따라 1958년 미국의 워싱턴대학의 도움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경영학도가 신설되면서 미국 경영학이 본격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이전까지 경영학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상학 혹은 경영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경영학과 비교해 볼 때 실천적 문제 해결에 대한 유용성을 강조하는 실용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연구방법이나 접근방법이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경영학 발전을 위한 모색과 도전(1960년~1970년대)

1968년 12월에는 경영학과와 공존해 오던 상학과가 상경대학 내에서 경영학과로 통합되면서 그 명칭이 사라지게 되었다. 경영대학원은 1965년 3월 1일 국민경제의 발전과 경영 업무의 효과 확대를 위해 유능한 경영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6년 3월에는 경영대학원 내에 최고경영자교실이, 같은 해 9월에는 관리자교실이 개설되었다. 관리자교실은 1979년 6월까지 1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최고경영자교실로 발전적으로 통합되었다. 1998년 1월에는 경제학과 석사와 연구과정, 최고경제과정이 경제대학원으로 분리되었다.

기독교 정신과 경영학 가치의 접목(1980년~1990년대)

졸업정원제는 기존 보고서 폐지와 대학의 질적 수준 향상과 대학 입학 기회의 확대,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표로 실시되었다. 정부는 당시 졸업 정원의 대폭 증원과 함께 1981년 대학 입학 인원을 졸업 정원보다 30%씩 증가시켰다. 그 결과 입학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후 문교부는 획일적인 졸업 정원제 실시로 파생된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84년 4월 5일 각 대학의 졸업정원 초과모집 비율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1990년대에는 경영 정보와 유통, 기업윤리 등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모색했

다. 우리나라의 경영 교육은 오직 효율만을 중시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산업화 과정 역시 효율성에만 집중했다. 그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기업윤리 과목을 가르치기로 한 것이다.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는 연세경영(2000년대~현재)

2003년 경영학도가 승격되어 경영대학으로 출범했다. 2006년에는 경영전문대학원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다. 경영대학이 분리될 당시 100년 전통의 연세 상경의 정체성 유지, 경제학과와 응용통계학과만으로 재편성되는 상경대학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학제 간 교류가 주요 이슈였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 학과는 여전히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여 경영대학과 상경대학, 두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영대학은 Creativity, Integrity, Global perspective를 경영대학의 3대 핵심가치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3대 핵심가치를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공교과 과정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CLC)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인 시각을 지닌 창의적 리더로 양성하고자 2008년부터 uGET (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eam-projec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업계 선도자들과 함께 하는 특강과 토론을 제공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창의성을 함양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로 삼도록 했다. 이를 위해 2008년 시작한 Creative Leadership Forum은 기업으로의 취업이나 창업, 학계로의 진학 등 학생이 개인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MBA 프로그램들은 2006년 경영전문대학원 출범 이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아왔다. Corporate MBA 프로그램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파트타임 MBA'에 진입하여 5년 연속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56에 랭크되었다. 2011년에는 Global MBA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선정 '세계 100대 풀타임 MBA'에 세계 7위, 아시아 4위로 국내 유일 최초로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4년까지 이코노미스트 선정 세계 랭킹에 진입한 대학은 연세대 Global MBA가 유일하다.

연세경영 100년사 편찬

연세경영 100년사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이며, 2015년 9월 발간 예정이다. 100년사는 연세경영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의 과거와 현재를 기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연세경영 구성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일 것이다.



연세대학교 현판식



상과졸업반의 인자연습 광경



조병욱 교수 재정책강좌



피난시설의 부상분교 모습(1953년)

연세경영 100주년, 눈부신 숫자 위에 더욱 빛나다! 숫자로 보는 연세경영 100년

연세대 경영대학이 2015년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경영학을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연세대 경영대학이
무수한 발자취를 남겼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영학 교육기관으로 출발,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수많은 주역들을 배출한 연세대 경영대학.
그 발자취를 숫자로 살펴보았다.



신입생 멘토링 동문 멘토 수 (2008~2014)

동문 선배 2~3명이 신입생 10여 명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과 인생에 대한 조
언과 격려로 건전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AACSB(미국
경영교육인증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우수성으로 찬사를 받은 프로그램으로
도 유명하다.

629
명

공인회계사 배출 인원, 국내 최다

연세경영은 공인회계사 최다 배출 대학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다. 1992년 이래 누적 합격자 수는 자그마치
2,658명. 전체 공인회계사의 10% 이상을 차지하며 현
재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하고 있다.

2,658
명

5,451
명

2000년대 연간 재학생 수

연세경영은 80여 명의 우수한 교수진들의 체계적인 교육 아래 미래
의 글로벌 경영 인재가 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도전과 열정을 거
듭하고 있다. 학부, MBA, 석박사, AMP를 포함해 연간 재학생 수가
현재 연세경영의 규모를 대변한다.

첫 독립건물 경영관 면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순수 기부로 건립되
는 신축 경영관은 연세경영의 자부심이자
향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최첨단 시스템, LEED 인증 등 창
의적이고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경영관은 2015년 8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34
m²

44,783
명

누적 배출 동문

연세경영은 2012년 1분기 조사 결과 1,000
대 기업 중 국내 대학 단일 학과 기준으로
최고로 많은 CEO를 배출한 것은 물론, 현
재 학계의 주역으로 경영학 학문을 이끄
는 등 곳곳에서 우수한 동문들이 활약하
고 있다. 그 숫자가 무려 44,783명이다.

연세경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다

2014년과 2015년 연세경영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연이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연세경영인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며 연세경영 탄생 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완성시켜 주었다. 연세경영의 가치와 미래까지 모색한 특별한 기념행사들을 소개한다.

피터 톨 초청 특별 강연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2015년 100주년을 맞이하며 피터 톨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은 2015년 2월 24일 연세대 백양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다. 피터 톨이 세간의 이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전자결제시스템회사 페이팔(PayPal)을 설립하면서부터였다. 2002년 페이팔을 상장시켜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 시대를 열었고, 2004년 그는 첫 외부 투자처로 페이스북을 선택해 이사로 활동했다. 같은 해 소프트웨어 회사 팰런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를 출범시켰다. 또한 링크트인(LinkedIn)과 옐프(Yelp)를 비롯한 수십 개의 성공적 기술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

피터 톨은 서울과 한식당을 예로 경쟁 심리를 설명했다. 예컨대 서울에서 한식당을 차리는 것은 경쟁 상대가 너무 많아 크게 성공하기 힘들지만 사람들은 독점 기업을 창업하기보다는 한식당 개업 같은 경쟁 시장에 뛰어들기를 선호한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많은 참여자가 있고, 신규 창업자는 많은 선례를 '모방'하는 데서 안도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작은 이윤을 두고 다투는 동안 독점 기업은 조용히 높은 수익을 챙긴다. '경쟁의 사각 지대'인 셈이다. 그는 청중들에게 경쟁이 주는 안도감보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자성'이 그가 진단한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이었다.



제2회 연세-알토 국제사례경진대회 공동 주관, 연세대 팀 3위

연세대 경영대학은 2014년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핀란드 알토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2014 제2회 연세-알토 국제사례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2013년 한국-핀란드 수교 40주년을 기념하며 양교가 처음 시작했다. 더불어 연세경영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도 있었다. 제1회 대회는 연세대에서, 제2회 대회는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열렸다. 제2회 대회는 참가 자격을 EU 소속 국가 대학생으로 확대하면서 더욱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했다.

박형수(경영 08), 손윤규(경영 09), 권재현(경영 09), 이용범(경영 10) 등 한국 대표팀은 네이티브에 가까운 유창한 영어 실력과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발표 내용을 통해 학부생임에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오픈 케이스(Open-Case) 방식을 채택한 본선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며칠에 걸쳐 자료 조사와 분석, 발표까지 모두 완수해야 했다. 때문에 자료를 찾는 능력과 주제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제2회 대회 주제는 "핀란드 정유 기업인 네스테 오일(Neste Oil)사의 재생 에너지"였다. 지정학적 역학관계와 각종 정치적 요소들이 얽혀 있는 기간산업 관련 주제로 현지 사정에 밝지 못했음에도 훌륭한 성과를 얻었다. 연세대학교 팀은 3위를 수상, 700유로의 상금을 시상금으로 받았다.



CL(Creative Leadership) 포럼 시리즈

연세대 경영대학은 연세경영 100주년을 기념하는 CL 포럼(Creative Leadership Forum) 시리즈를 개최했다. CL 포럼 시리즈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사회 분야에 대해 집중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포럼은 연세대 경영대학의 주요 학회 동아리가 기획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제1회 CL 포럼은 2014년 6월 2일 삼성학술정보관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Career in Finance'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포럼은 기업재무학회 CFRC가 함께 기획·준비했다. 연사는 바클레이즈(Barclays) 한국지사장 고준흠(Sean Ko) 대표로, 그는 금융업에서의 경험과 커리어 개발 전반에 관한 내용을 주제 특강을 펼쳤다.

제2회 CL 포럼은 2014년 9월 25일 대우관각당헌에서 이주열(경영 70) 한국은행 총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또한 총재 특강에 이어 국책 은행을 주제로 업계에 재직 중인 동문 선배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허재성(경영 77) 한국은행 부총재, 김상로(경제 76) 산업은행 부행장, 홍영표(경영 76) 수출입은행 부행장, 민홍식(경영 76) 수출입은행 부행장, 김성택(경영 78)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2014년 11월 19일에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창업 커리어'를 주제로 제3회 CL포럼을 개최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경영 88) 이외에,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경영 89), 정도현 라파스 대



표(식품공학 87), 이종대 TREUM 이사(경영 04), 김미균 시지은 대표(신문방송 05), 원준호 COMOVE 대표(경영 06),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전기전자 07) 등 동문 신진 스타트업 대표 6명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탄생 100주년 엠블럼 및 슬로건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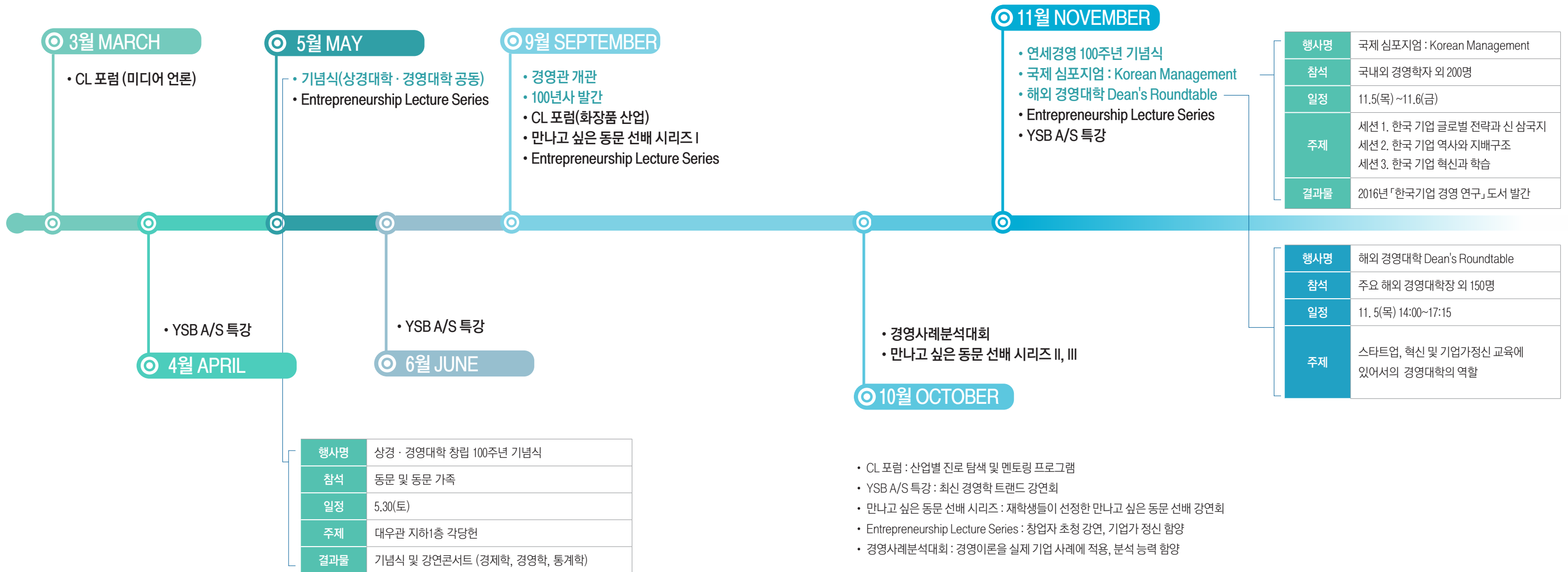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며 엠블럼과 슬로건을 제정했다. 엠블럼은 연세경영의 전통성, 자부심, 품격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단단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주었다. 또한 100과 '무한대'라는 디자인 에센스를 결합하여 무한하게 성장하는 연세경영을 나타냈고, 우리 대학교의 로열 블루를 번지도록 표현해 미래 지향성을 담았다. 슬로건 'Change the World, Lead the Future'은 세계를 변화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크리에이티브 리더를 배출하겠다는 연세경영의 꿈과 비전을 선언했다.



100주년을 새기며 새 미래를 열다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아 2015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연세경영 100년의 가치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2015년 주요 행사를 소개한다.

2015년 100주년 기념 주요 일정



연세경영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신축 경영관

2015년 8월 완공되는 신축 경영관은 연세경영의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건축이 될 전망이다. 첨단 시스템과 교육 철학을 접목해 학습 문화가 바뀌고, 다양한 친환경 아이디어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체질화하고, 기부자들을 기억하는 공간들을 통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구성한 것이다. 연세경영 100주년 최초의 독립 건물이자 기부만으로 설립되는 신축 경영관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2013년 11월 27일 기공식을 갖고 연세대학교 대강당과 노천극장 사이에 세우고 있는 신축 경영관은 20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8월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영관의 연 면적은 약 20,135㎡(6,090평)이며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된다. 연세경영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요람이 될 경영관은 연세경영 최초의 독립 건물이자 기부만으로 설립되는 건축으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경영관은 연세경영의 특성을 살린 신개념 건축을 통해 연세경영의 새로운 문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키워드는 바로 '토론 문화의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그리고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다.

토론 문화를 활성화한 미래 지향적 첨단 강의실

신축 경영관 가운데 학부생들을 위한 공간인 지하 2층에는 2개의 특별한 강의실이 별도로 설계되었다. 바로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Active Learning Classroom)으로 명명된 80평과 40평 규모의 평면 강의실이 그것이다. 경영학 교육 프로그램은 그룹 토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토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강의실의 형태를 탈피해 다양한 토론 수업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이다. 먼저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은 자유자재로 테이블 배치가 가능한 움직이는 의자 노드 체어(node chair)를 비치해 다양한 그룹 토론과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빔 프로젝트와 전자탁자가 위치한 강단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은 하얀 유리로 되어 있어 칠판으로 활용하거나 포터블 빔 프로젝트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경영학 교육의 새로운 시도를 위한 최첨단 강의실이다.

평면 강의실뿐 아니라 경영관 곳곳에 마련된 30개의 크고 작은 토의실 역시 사면을 모두 유리로 감싸 칠판과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의실은 모바일 예약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룹 토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 2층에 마련되는 크리에이티브 라운지(Creative Rounge)를 포함한 크고 작은 라운지 역시 부족했던 휴게 공간을 해소하면서 더불어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팀워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모든 교육 공간이 연세대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장려하도록 설계해, 면학 분위기를 발휘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것이 바로 신축 경영관 교육 공간



액티브 러닝 클래스룸(Active Learning Classroom)



의 특색인 것이다.

한편 신축 경영관은 첨단 기기를 접목해 학생들의 편의를 돕게 된다. 건물 전체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프린터를 전송하고 7곳의 레이저 프린트 스테이션에서 출력물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SNS 스튜디오가 마련되며, 학생들에게 모바일과 키오스크로 개폐가 가능한 전자 락커도 지급될 예정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체질화하는 건물

신축 경영관은 국내 대학 건물 최초의 LEED 인증 건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의 USGBC(US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평가하는 국제친환경 인증제도로 에너지 절약, 자연환경 보존, 친환경적 건축자재, 실내 환경의 쾌적성 등을 평가해 건물의 친환경성을 인증해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인증 제도이다.

국내에도 최근에 지은 최첨단 비즈니스 건물들이 LEED 인증을 받고 있지만, 대학 건물로서는 연세대학교 신축 경영관이 최초이다. 연세경영은 보다 긴 안목에서 LEED 인증을 실시했으며, 이를 위해 옥상에 2개의 태양열 집광판을 설치하고 대부분의 연구 공간 냉난방을 지열 에너지로 운영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친환경성에 주력했다. 연세경영은 이번을 계기로 향후 짓게 되는 연세대의 모든 건물을 첨단 친환경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축 경영관은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친환경 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축 경영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경우 그 혜택으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연세경영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컨대 신축 경영관에서는 카페에서 종이컵 대신 텀플러를 사용하거나,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마일리지 점수가 주어진다. 마일리지는 향후 연고전에서 VIP 좌석을 제공하거나 수강신청 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논의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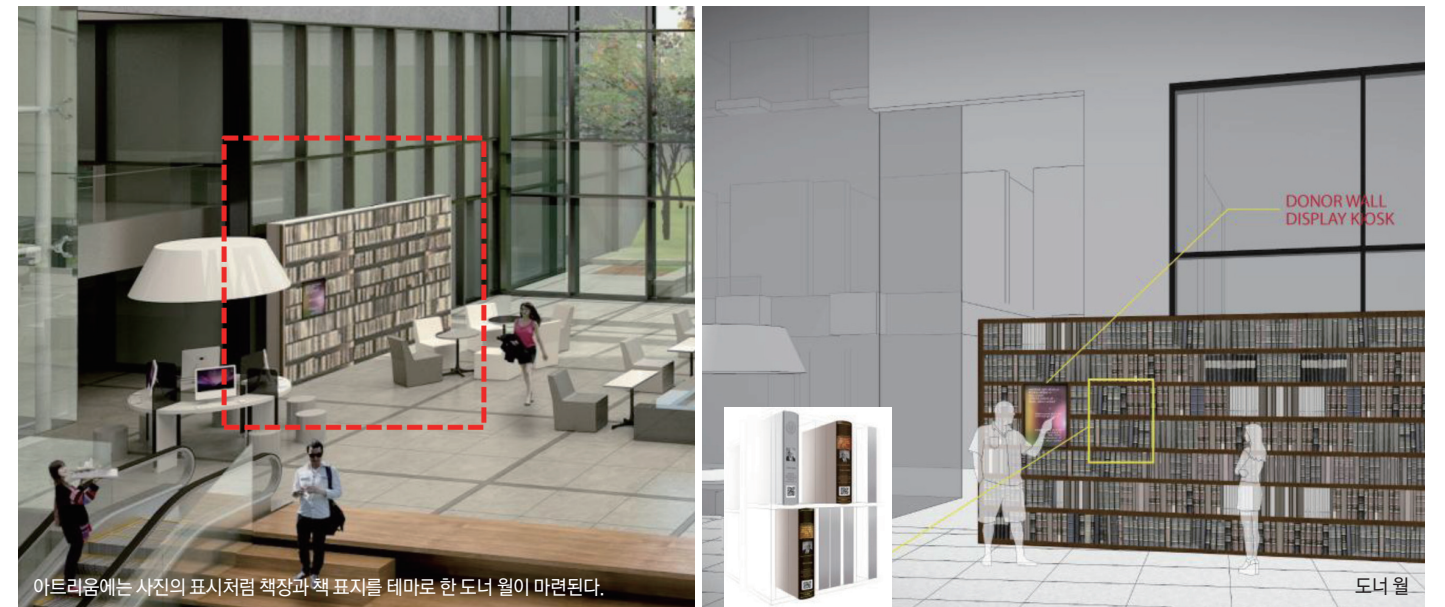
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축 경영관은 자전거 발전을 이용한 현대전화 충전소, 밟을 때마다 전기를 얻게 되는 페이브 젠(Pave Gen)의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신축 경영관에는 단순히 친환경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건물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에게 에너지 절약 정신을 체질화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 있다.

기부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축 경영관은 100% 기부로 지어지는 건물이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애정과 관심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신축 경영관에는 건립에 기여해 주신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는 공간이 군데군데 마련될 예정이다. 신축 경영관의 가장 중심 되는 공간인 2층 아트리움에는 책장을 컨셉으로 한 도너 월(Donor Wall)이 마련될 계획이다. 3층 높이 100평 공간의 아트리움 한쪽 벽면에 기부해주신 동문들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사항이 책의 저자 형태로

꾸며지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구성될 책장 컨셉트의 도너 월은 가운데 키오스크 스크린을 통해 기부자들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들은 센테니얼 가든(Centennial Garden)에 기념 조형물을 조성해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두 개의 기둥에 총 16면으로 세워지는 센테니얼 모뉴먼트(Centennial Monument)에는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아로새겨지게 된다. 강의실 등 경영관 내 주요 공간은 신축에 큰 기여를 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함께 새길 예정이다. 연세경영인들은 경영관을 이용하면서 늘 감사와 존경을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신축 경영관은 이처럼 '토론 문화의 활성화'와 '친환경 건축', 그리고 기부자들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완공된다.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학습문화를 익히고 에너지 절약을 체질화하며 기부자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연세경영의 새로운 문화를 주도할 신축 경영관의 완공이 기대되는 이유다.



서경배 동문(경영 81,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 “꿈꾸고 질문하는 미래의 세계 경영인들에게...”



아모레퍼시픽을 세계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서경배 동문(경영 81)은 8월에 완공되는 경영관 건립에 큰 성원을 보내며 졸업 후에도 연세경영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이어나가고 있다.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동문인 서경배 동문으로부터 연세경영 발전에 대한 소회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다.

고 있다. 서경배 동문은 신축 경영관에서 보다 많은 후배들이 원대한 꿈을 꾸며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리더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기회가 될 때마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크고 긴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힘들고 고단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서는 현실에 대응해 나가는 오른손과 함께, 더 높은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왼손이 필요한 법입니다. 높은 목표와 꿈을 가져야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계획을 세워야 실천할 수 있으며, 실천할 때 비로소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실패는 성공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리더의 소양 가운데 하나로 인문학과 역사학에 대한 지식을 중시하는 서경배 동문은 송도 캠퍼스의 역할에 관심을 갖기도 한다.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뿐 아니라 학생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현상을 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학교가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올해는 우리 연세경영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연세경영의 순수한 학구열과 강한 도전정신으로, 지나온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특히 우리 후배들이 더 큰 세계로 뻗어나가, 세상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경배 동문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영으로 바쁜 나날 속에서도 모교인 연세대 경영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만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아 건립하는 최초의 독립된 경영관 신축에 크게 기여하며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

연세경영의 저력은 '사랑'과 '글로벌 관점의 안목'
서경배 동문은 졸업 동문으로서 느끼는 연세대 경영대학의 근성을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과 설립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글로벌 관점의 안목'이라고 손꼽는다. 이러한 연세경영의 저력과 근성은 서경배 동문이 추구하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꿈꾸고 질문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질문에서 나오며 저절로 나오는 결과는 태양 아래 없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세계 경영과도 일정 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고객, 내부, 직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경영 활용의 생명선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고객 중심이라는 말을 널리 쓰는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남에게 이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 즉 인류에 봉사하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구성원이 어떻게 즐겁고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는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내부적인 요소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항상 앞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지금 잘 되면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지만, 미래를 창조하지 못하면 사그라지는 것이 기업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세상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경배 동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영 전략인 가설 검증, ‘Test & Run’은 미래를 창조하는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바꿔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 그 단계별 시행착오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이다.

“후배들이 미래를 개척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는 곧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꿈꾸고 질문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질문해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는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질문에서 나오며 저절로 나오는 결과는 태양 아래 없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높은 곳에서 꿈을 크게 바라보는 독수리의 눈과, 가까이 다가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곤충의 눈을 함께 키우며 항상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주현 동문(MBA 1977, S&S Inc. 회장) 미래 교육의 시스템으로서 경영관을 기대한다



금속을 가공하는 S&S Inc., 자동차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S&S금속, 산업용 밸브를 생산하는 S&S밸브 등을 운영하는 양주현 동문은 '연세경영'과 인연이 깊다. 1977년 MBA 27기로 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아들인 양준호 전무 역시 학부 신학과 출신이며 Global MBA 동문이다. 그는 경영관 신축에 1억 원을 쾌척했다.

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교육이지만, 그 근간만큼은 연세경영 MBA에서 세원 기초와 학구열에서 기인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연세경영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양주현 동문은 최근 연세경영의 발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특히 연세 MBA 과정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지 선정 세계 100대 MBA에 선정되는 등 글로벌 교육 기관으로 성장한 것에서 자신의 재학 시절과의 엄청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연세 MBA를 통해 배움에 눈을 뜬 이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큰 편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미래 교육 수준은 시스템과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에는 소프트웨어만큼이나 하드웨어 역시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마침 연세경영이 새로운 경영관을 신축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과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평소 현재보다 미래요,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보람, 쾌락보다 감동, 소유보다 나눔을 중시하는 양주현 동문은 특히 나눔에 대한 큰 관심으로, 현재 부친이 1988년 3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S&S빛과소금이 만든 정부인가 1호 실버타운 유당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유당마을을 통해 노인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사람은 항상 전보다 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학 전보다 후가 중요하고, 성공 전보다 후가 중요합니다.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지 않으면 성공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어야 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신축 경영관에서 열심히 공부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기를 기대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을 '대략을 통한 자'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연세 MBA는 제가 아버지가 창업한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2세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대략'을 알게 해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눈뜨며 많은 분야를 섭렵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기업을 이끌어온 것은 그 당시에 다진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양주현 동문은 연세 MBA를 계기로 얻은 남다른 학구열로 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배움의 길을 걸었다. 필리핀 AIM 대학 경영관리 과정, 하와이주립대학 마케팅 관리 과정, 하버드대 정책과정, 서울대 AIP ASP,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원 I&C 프로그램, 매경외대 차이나 CEO 과정 등이 그것이다. 늘 한 발 앞서 경영

김법용 동문(AMP 77기, 벽성이엔지 대표이사) 경영관 신축 기금은 AMP의 값진 경험의 보답

AMP 77기 원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법용 동문은 경영관 건물 신축기금 1억 원을 약정하며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는 77기 원우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원우회가 단체로 5천만 원을 기탁하는 데 회장으로 기여하기도 했다. 개인의 참여보다 원우들의 동참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그는 경영관 신축기금을 AMP에서 얻은 값진 경험의 보답이라고 정의한다.

김법용 동문은 5년간 사인(Sign)과 건설 현장의 가설 방음벽, 가설 사무실 분야에서 발전해온 벽성이엔지의 대표이사이다. 벽성이엔지는 2004년까지 사인 전문회사로 성장한 이후, 2005년 건설업 등록 후 전문 건설기업으로 발전해왔다. 김법용 동문은 활발한 활동과 단합으로 유명한 AMP 77기 원우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AMP 77기는 다수가 원하는 꾸준한 활동들로 어느 기수보다 돈독한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골프회 활동을 중심으로 영화, 공연, 및 전시회 관람 등을 함께 하며 원우들 간의 관계를 쌓고 있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연세 AMP는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기업인, 훌륭한 CEO들을 만나고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식을 쌓으며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등을 학습하고 세미나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얻은 것도 경영자들에게 큰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법용 동문은 오는 8월 완공되는 연세경영 신축건물에 대한 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했다. 연세 AMP를 통해 경영 지식과 훌륭한 인연을 얻으면서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할 방법을 모색한 결과, 학교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4학년에 재학 중지만 AMP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저 아들의 학교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AMP를 통해 연세대에 큰 애정이 생겼습니다. 특히 송도 캠퍼스 방문 후 신축기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교수진과 프로그램에 따라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 이 그렸습니다."



김법용 동문은 AMP 77기 원우회가 단체로 5천만 원을 기탁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둔다. 이것이야말로 77기 원우들의 적극성과 열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77기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건축기금 마련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세 AMP는 지난 40년간 이 땅의 기업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1년 간 AMP 과정을 이수하며 학교와 동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극과 자부심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 AMP가 우리 사회를 자부심 있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영렬 교수 ‘캠페인’ 5,000명 달성은 연세경영의 자존심



박영렬 교수는 경영관 신축에 보다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경영관 착공을 기념하고자 2013년 12월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후 학장 임기를 마친 지금까지도 캠페인의 확산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캠페인에 참여한 동문은 1,500여 명. 박영렬 교수는 ‘캠페인’ 5,000명 달성은 연세경영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한다.

“주로 이메일을 통한 홍보가 이뤄졌는데,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동문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 교수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격려 메시지와 아이디어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 캠페인을 통해 연세경영 동문의 소속감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렬 교수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확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연세경영 100주년을 기념해 학년별 100구좌, MBA 50주년을 기념해 MBA 기수별 50구좌, 내년 AMP 40주년을 기념해 AMP 기수별 40구좌 달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MBA 18학번과 AMP 77기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박영렬 교수는 스스로도 자신은 물론 가족의 이름으로 10구좌에 참여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다. 부인과 자녀는 물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지도교수, 그리고 동료였던 이문규 교수의 이름으로도 캠페인에 참여한 것이다. 신축 경영관에는 캠페인 참여자들을 기념하는 센테니얼 모뉴먼트(Centennial Monument)가 세워지는데, 그 안에 가족의 이름이 함께 새겨지는 것 또한 큰 의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연세경영 100주년 축제의 주인공은 ‘학생’이다!

박영렬 교수는 연세경영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해 소액 기부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 목표라고 말한다. 지난 100년 동안 연세경영을 만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 또 다른 100년의 출발을 알리는 데 의미 있게 참여하고, 그 사랑이 모여 아름다운 소액 기부 문화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영렬 교수는 이제 학생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연세경영이 탄생 100주년이 되고 그 상징으로 경영관이 8월 말 완공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연세경영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액 기부자 위주의 참여가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동문 모두가 참여해서 대축제의 마당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은 2013년 12월 캠페인을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1,500구좌를 달성하는 결실을 맺었다. 처음 캠페인을 기획했을 때 주위의 많은 이들이 뜻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호응에는 의문 부호를 붙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캠페인 시작 1년여 만인 지난 2014년 10월 1,000구좌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연세경영의 또 다른 100년을 위해 소액 기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 목표라고 말한다. 지난 100년 동안 연세경영을 만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을 합쳐 또 다른 100년의 출발을 알리는 데 의미 있게 참여하고, 그 사랑이 모여 아름다운 소액 기부 문화가 완성되기를 기대한다.”

“학부 재학생 중에서도 40여 명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고마운 분들입니다. 졸업 동문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재학생들은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으로 동참한 것이니까요. 또한 앞으로 재학생들이 어떻게 캠페인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인이 되어 건물을 쓸 학생들이 캠페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연세경영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때 그 폭발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박영렬 교수는 학생들이 캠페인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고, 캠페인 자체가 하나의 학습의 장이 되어 연세경영 100주년의 축제 속에 주인공이 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학생 스스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심에서 서서 주변의 많은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메신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중종 학생들에게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이 재학 시절의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곤 합니다. 예컨대 홍보 자료를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졸업 선배를 만나 가치를 공감시켜 참여시킨다거나, 혹은 부단한 노력으로 신축 경영관에 내 이름을 남긴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지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 역시 사회생활을 위한 큰 훈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축 경영관은 연세경영 100주년의 상징이자, 새로운 100년을 위한 더 큰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 축제의 주인공은 재학생이며,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의 완성 또한 재학생들의 힘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영렬 교수는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은 건물 완공 후에도 이어져야 하며, 5,000명 달성은 연세경영의 자존심을 거듭 강조했다.



캠페인 참여 재학생들의 한마디

김규복(경영 09)

저는 2013년 한 해 동안 연세경영 홍보대사 BizYON으로 활동하며 경영관 신축 사업의 의미와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을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알리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홍보대사로서 캠페인의 의미를 깨달아 참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하셔서 연세경영 발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경영 10)

제가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약정을 하고 매일 10만원씩 기부한 지 벌써 반 년이 지났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참여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연세경영의 새로운 100년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볼 때 당장은 배고픔이 밀려오지만, 신축 경영관이 완성되는 모습에 남모름 자부심을 느낍니다.

조민기(경영 11)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학에 독립 건물이 없다는 것이 늘 궁금했고 언젠가 경영관을 설립한다면 소액이나마 참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군 제대 후 복학과 함께 직접 번 돈의 일부를 모아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매우 뿌듯합니다. 다들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고종태 동문(AMP 77기, 리젠시아시아(주) 대표이사) AMP 77기의 열정은 AMP 40주년의 의미다!



AMP 77기는 2016년 AMP 40주년을 기념하며 경영관 신축을 위해 펼치고 있는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기수별 40구좌 캠페인에서 가장 먼저 달성하는 열정을 선보였다. 77기 원우회 사무총장으로 동기들의 관심과 열정을 이끈 고종태 동문은 개인적으로 10구좌를 참여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며 연세경영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정서를 적용해 첫 모임에서 모두 형과 동생으로 호칭을 바꾸며 벽을 한 번에 허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해 반별, 지역별, 동갑별 소모임을 활성화한 것이 원우님들을 하나로 만드는 데 주효했다고 봅니다. 학기 중에는 수업 일 외에도 반모임, 원우모임, 골프모임, 문화모임, 즉흥만남 등 각자 주 2~3회, 월 10회 이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석률이 매우 높았던 것을 보면 값지고 유쾌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7기의 단결력은 특히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의 AMP 기수별 참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77기가 40구좌를 가장 먼저 달성한 것이다. 특히 고종태 동문은 사무총장으로서 동기들의 높은 참여를 위해 수업을 포함한 각종 모임에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열정적인 원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물론이었다.

“2015년은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로마가 장기간 융성한 것은 많은 이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경영이 세계 속에서 원대한 경영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딸과 조카들도 연세대에 다니고 있어 작지만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종태 동문은 연세대학교 AMP가 새로운 지식 습득과 체계적인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적 책무 활동을 통해 더욱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고종태 동문은 지식경제부 인증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우수기업’, 중소기업청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리젠시아시아(주)와 한국리젠시(주)의 대표이사이다. 독일의 브라운(Braun) 등 해외 유명 브랜드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마케팅 및 유통을 하고 또한 국내 우수 브랜드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고종태 동문은 열정적인 활동으로 유명한 AMP 77기 원우회의 사무총장을 맡아 이들의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단합의 비결을 서로의 벽을 허문 ‘소통’과 ‘참여 유도’라고 설명한다.

강의철 · 김경진 부부 부부가 함께 연세경영 사랑을 실천하다

지난 2014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은 강의철 · 김경진 부부는 얼마 전 함께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에 참여했다. 두 사람의 소중한 인연을 맺어준 연세경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부였다.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부터 시작해 연세경영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부부의 뜻 깊은 활동을 전한다.

강의철(경영 02) · 김경진(경영 05) 부부는 학부 졸업 후에도 여전히 연세대학교와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의철 동문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하나은행에 다니는 김경진 동문은 현재 MBA에 재학중이다. 또한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당시 연세경영 학장을 맡고 있었던 박영렬 교수의 주례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블루 버터플라이가 끝난 시점에서 학교를 위해 작은 기부를 이어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는데 때마다 주례를 맡아주시는 박영렬 교수님이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건물이 낡았다는 생각은 재학 중에도 갖고 있었고, 워낙 취지가 좋아 나란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부는 함께 졸업해 사회에 진출한 동기들에게도 이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좋은 취지의 캠페인임에도 사회생활에 바쁜 최근 졸업 동문들로서는 관심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는 이유다. 보다 많은 동기 선배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보다 끈끈한 졸업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졸업 후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예전 선배들 세대에 비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 군대 제대 후 한 선배의 권유로 무작정 임건신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이후 항상 조언을 해주시며 든든한 인생의 조력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후배들도 재학 시절에 교수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진 동문은 졸업 후에 느낀 경영학의 가치를 후배들에게 조언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학문은 회사 생활과 실무 활동을 펼치는 데 있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해법을 제공한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연세경영 MBA에 진학한 것 또한 경영학에 대한 더 큰 배움을 얻기 위함이다.

강의철 · 김경진 부부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세경영 발전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부부는 큰 기대를 갖고 연세경영 최초의 독립된 경영관 완공을 기다리고 있다.

도원식 학생(경영 09) 모든 변화는 작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저는 평소 연세경영에 다니면서 교수님과 선배님 등 주위의 도움을 받아 인성적으로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제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장학금을 보다 의미 있게 쓰는 것이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양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리 장학금과 자유 장학금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 학부 장학금 가운데 도원식 학생이 받은 것은 성적 우수자에게 제공하는 진리 장학금이었습니다. 이에 도원식 학생은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장학금을 양도했다. 장학금을 뜻한 대로 쓰고 싶다는 아들의 이야기에 부모님 역시 그 뜻을 알고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도원식 학생은 지난 3학년 2학기 때 성적 우수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지만,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학우에게 전달되어 좀 더 값지게 사용되면 좋겠다”며 장학금을 선뜻 양보해 화제가 되었다. 결코 대단한 일이 아니라며 겸양하는 그는, 작은 실천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한다.

“저 역시 학부생이지만 후배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갔다는 것이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모른 척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후배가 그냥 넘길 수 없었는지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신도 나중에 주변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문자로 후배가 편지에 쓴 진로 관련 고민을 언급하며 답장을 보내기도 했지만, 괜히 오히려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싶어 미안했습니다.”

도원식 학생은 연세경영의 가장 큰 장점에 대해 본받을 사람이 많은 것을 손꼽았다. 종종 학교에 강연을 오시는 졸업 동문 선배님, 그리고 교수님들로부터 학문적인 부분을 포함해 인생의 지혜를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다.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말씀은 연세경영인이 되었으면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항상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매우 신선한 메시지였고 저 또한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원식 학생은 평소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최근 주로 하고 있는 봉사 활동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하고 있는 외국어 통역이다. 봉사 시간을 채울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한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 꼭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해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실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항상 돕고 나누면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들을 위한 기부 문화 전통 **2015 Class Gift**

졸업생들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해 신입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연세경영의 아름다운 내리사랑 캠페인 'Class Gift'. 2010년에 시작된 Class Gift는 이제 연세경영의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재학생들도 신입생들의 입학 축하하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2014학년도에 진행된 2015 Class Gift에는 총 200명의 졸업생이 참여해 5,845,000원의 금액이 모였다.

2015 Class Gift 참여 현황

200명

참여자 수

5,845,000원

참여금액

졸업생 선배들이 신입생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

강모정(경영 07)

대학생활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책임을 배워 나가며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숙해지는 대학생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도전, 다양한 경험을 나누며 성장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강석진(경영 06)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졸업 이후에는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길 권하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길!

김홍준(경영 08)

처음 경영대학에 들어올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경영대의 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선배들의 가르침 덕분에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성현석(경영 06)

우리가 걷는 이 길도 과거의 누군가에게 도전이자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무척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슬비(경영 10)

대학생의 특권은 무엇이든지 패기 있게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마음껏 꿈꾸고 그 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대학생활이 되길 기원합니다.

조희근(경영 09)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펼쳐 나가셨으면 합니다. 인간관계나 외적인 것들에 투자하는 만큼 본인의 역량을 쌓아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나가길 바랍니다.

황재성(경영 07)

지금까지 고된 수험생활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는 대학입학이라는 작은 목표에서 벗어나 더 큰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 역량과 더불어 겸손과 인성을 갖추어 자랑스러운 연세경영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며, 나중에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동설(석사 2013)

대학원 2년 동안 고생했지만 노력만큼의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2년 후에 똑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주변에 도움 준 분들께 꼭 고맙다는 마음 갖길 바랍니다.

김도연(박사 2001)

학교를 오래 다닌 제가 대학원생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학기부터 졸업논문 주제에 대해 고민해 빨리 정하라는 것입니다. 기말 페이퍼 숙제는 다음 방학에 바로 저널에 투고하도록 노력하고요, 또한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더불어 후회 없이 능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김진규(MBA 2013)

연세대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잊지 말고 졸업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이어가길 바랍니다. 파이팅!

유정윤(MBA 2013)

연세대 MBA는 저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자신을 믿으세요!

이병우(MBA 2014)

힘든 MBA 2년. 옆에 있는 동기, 선배들과 함께 한다면 같이 함께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태훈(MBA 2013)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이현미(MB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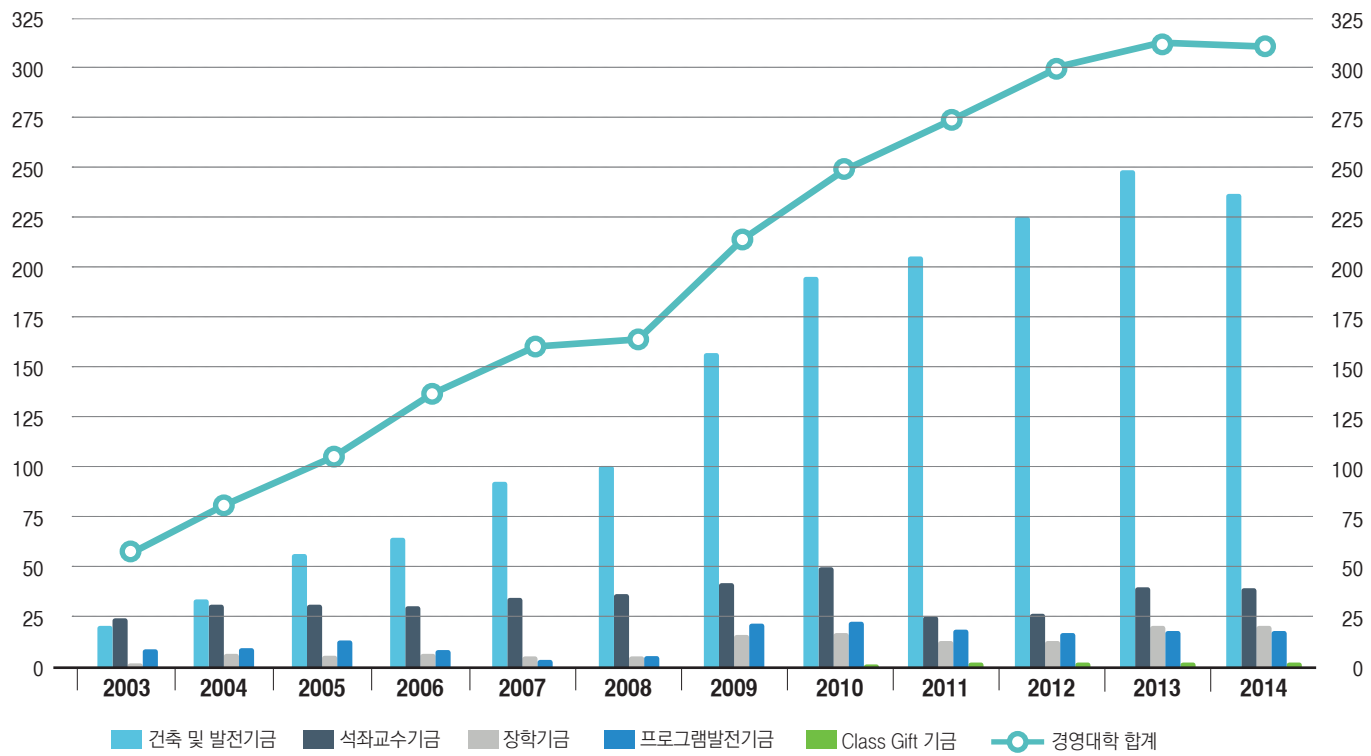
직장생활하면서 학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여러분들이 멋집니다. 4학기에 걸쳐 직장생활과 학업, 가정생활 3가지를 병행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동기 원우들끼리 서로 도닥여주고 힘을 주면서 험하게 잘 견뎌 내길 바랍니다.

이상원(MB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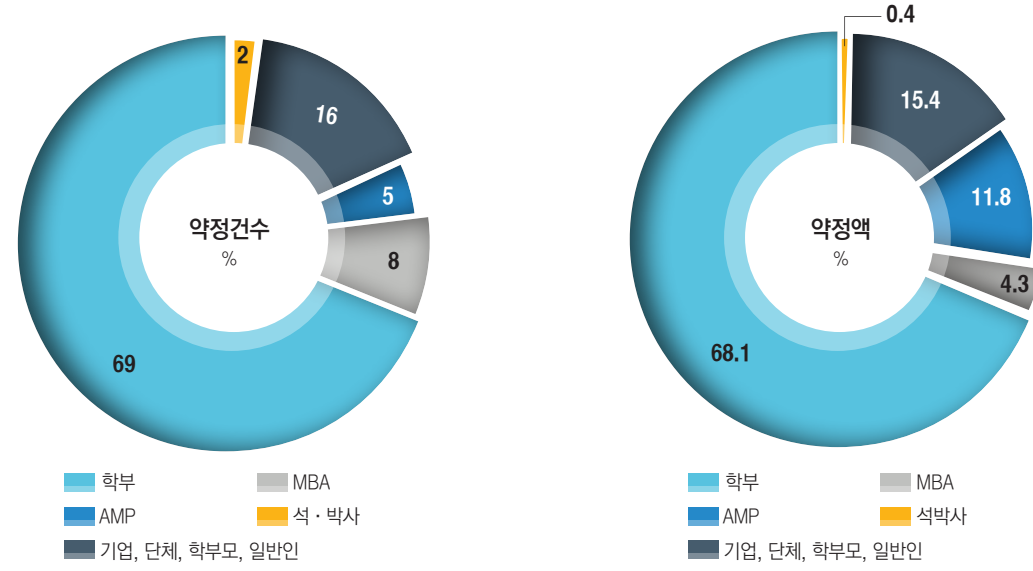
연세경영인으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세요. 또한, 하고 싶은 것 모두 하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소중하고 뜻 깊게 보내길 바랍니다.

경영대학 기금 현황

경영대학 기금 잔액 추이



2014 경영대학 기금 신규약정 동문 기여도



uGET 프로그램 후원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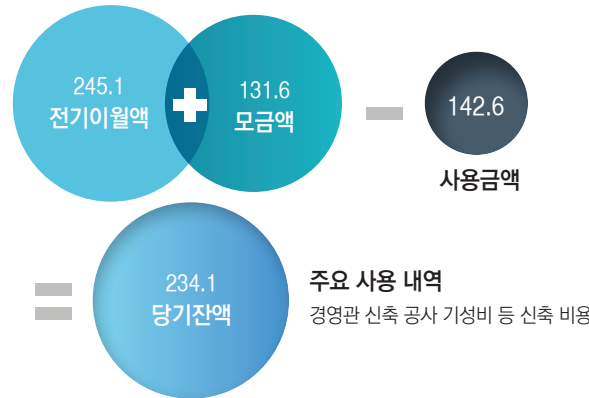


Annual Report 발간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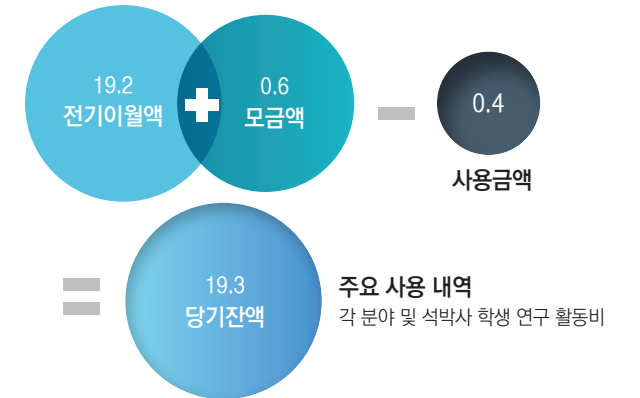
건축재원기금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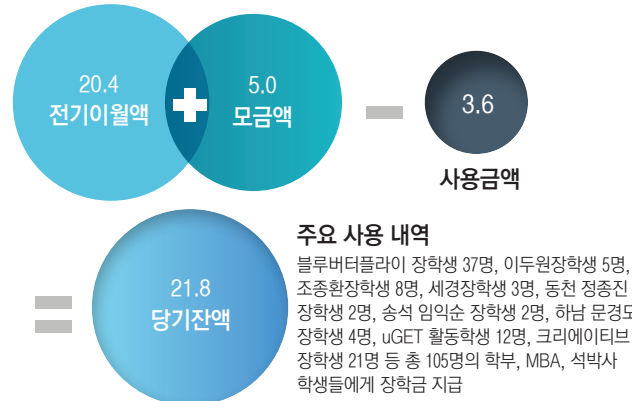
프로그램발전기금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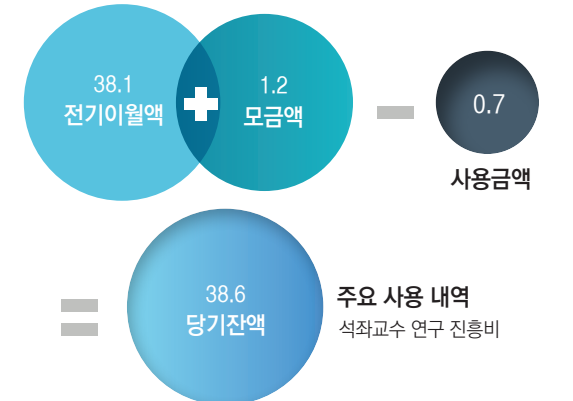
장학기금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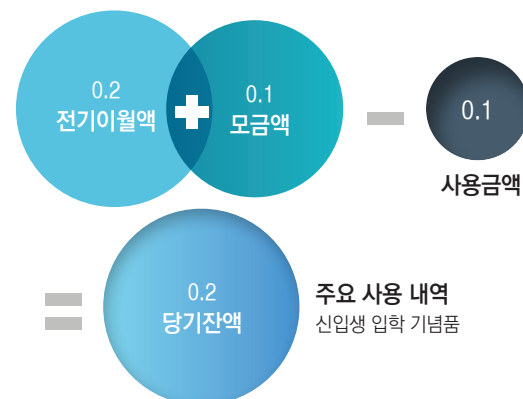
석좌교수기금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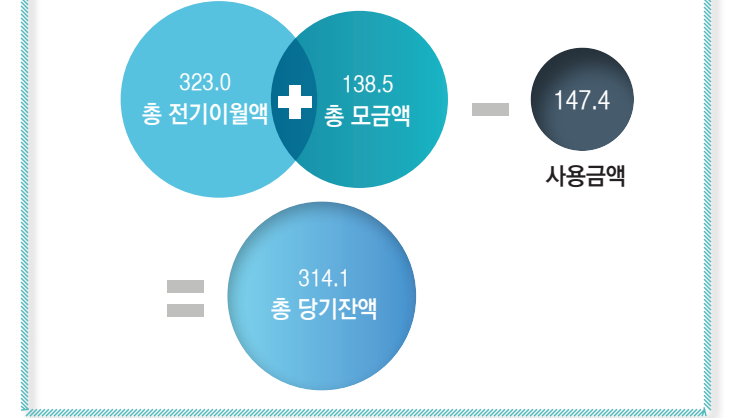
Class Gift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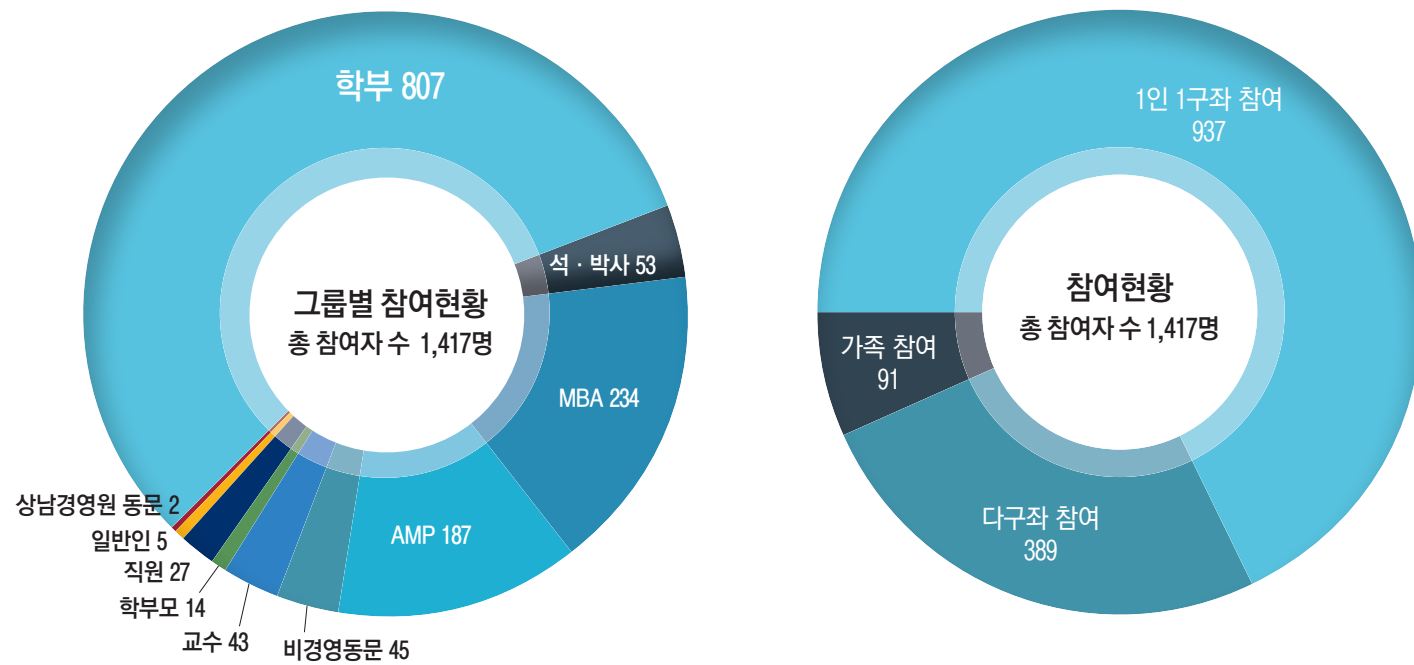
합계

단위: 억원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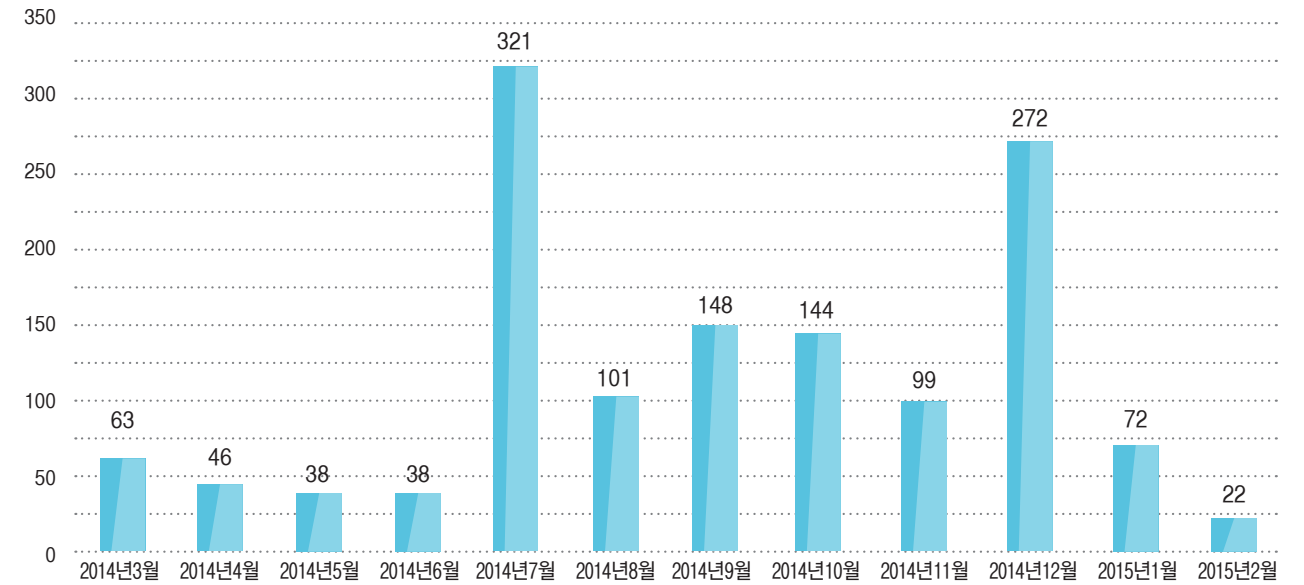
2013년 경영관 신축 기공식을 기념하며 시작한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에 참여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53명이 참여한 이후,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무려 1,364명이 참여했다.



최다 참여 학번



월별 참여자 수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이색 참여 사례

논문경영대회 수상금 기부

연세-SERI EU센터 주관 EU 논문경영대회에 참여해 대상을 수상한 유재준(석박통합 12), 김필수 학생(박사 13)이 시상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며 나란히 캠페인에 참여했다.

연희전문대학 상과 동문 참여

1942년 연희전문대학 상과 출신의 동문인 탁연택 동문이 캠페인에 참여해 최고 학번 참여자로 기록되었다. 연세경영 역사의 산 증인이기도 한 탁연택 동문은 '연희전문학교 정경상학부 제31회 졸업생 일동(1949년)' 사진과 1984년 발행한 동문소식지 등을 경영대학에 기증하며 뜨거운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

익명 기부자

경영 93학번의 한 익명 기부자가 모교 방문길에 캠페인 소식을 듣고는 4구좌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전달했다. 익명을 원한 기부자는 지도교수였던 김태현, 이지만 교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인 최다 참여

경영 77학번 이성문 동문이 총 20구좌에 참여, 개인 최다 참여자가 되었다.

해외 주재 동문 참여 사례

해외 주재 중인 동문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독일에 주재 중인 주재진(경영 81), 유희운(경영 84) 동문, 미국에 주재 중인 손용민(경영 82), 윤석영(경영 83), 김성민(경영 87), 송상철(경영 92), 조나은(경영 01), 김경희(경영 04), 김은우(경영 06), 프랑스에 주재 중인 장수진(경영 04) 동문, 싱가포르에 주재 중인 김석현(경영 91) 동문, 일본에 주재 중인 이경해(경영 78) 동문, 중국에 주재 중인 안영빈(경제 97) 동문 등이 멀리 해외로부터 따뜻한 응원을 보내 주었다.

학부 재학생 최초 참여

이의석(경영 05) 재학생이 학부 재학생 최초로 참여하며 "연세경영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대기업 기부를 만들어지는 건물보다 많은 동문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군은 "캠페인 참여가 앞으로 자신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학생 시절 만난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강의철(경영 02), 김경진(경영 05) 동문이 학생 때 만난 인연으로 부부가 되었다며 나란히 캠페인에 참여했다.

연세경영, 새로운 100년의 시작

2014년 5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조선히텔 오키드룸에서 '연세 경영, 새로운 100년의 시작'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연세경영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오늘날의 연세 경영을 이루는 데 큰 도움과 조연을 준 학부, MBA,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그리고 교수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영관에 동문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

행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동문들은 홀 앞에 마련된 카테일 리셉션에서 오랜 만에 만나는 다른 동문들과 담소를 나누며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송자(상학 55, 전 연세대학교 총장), 김기영(상학 57, 전 광운대 총장), 김영진(상경·경영대 동창회 회장) 동문을 비롯한 많은 동문들과 교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아나운서 손범수 동문(경영 82)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박영렬 학장은 "경영관 건축을 위한 지난 10년간의 어려운 시간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어 굉장히 기쁘다. 2015년 8월말 준공될 경영관에 동문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주시기를 기원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한편 행사를 위해 특별히 기획된 동영상은 연세경영의 역사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에 대한 바람과 성공적인 경영관 건립에 대한 연세경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 영상은 동문, 재학생, 교수, 학부모 등 20여 명의 연세경영인이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경영관 건립의 바람, 그리고 100년을 맞는 연세경영의 역사성을 소개했다. 송자 전 연세대 총장은 "해외 유명 대학들의 평가 기준에 동문들의 기금 참여와 참여 인원이 있다"며 "우리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참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동문들의 뜨거운 애정으로!

행사에서는 동문들의 건축 기금 약정이 이어졌다. 박영숙(경영 82, 플레시먼 힐러드코리아 대표), 전찬민(경영 86, 잡스 대표이사), 신용환(경영 88, 지엘인 베스트먼트 대표) 동문 그리고 재학 중인 서정민(MBA 13, 삼성화재 상무), 황사용(MBA 13, 신성로지스 대표이사) 원우가 각각 1천만원을 약정했다. 또한 이흥기(AMP 47기, 골드라인 회장) AMP 총동창회 회장이 2천만원을, 정성규(AMP 70, 성우상사 대표이사) 동문이 2백만원을 약정했다.

단체 약정도 이어졌다. 김법용(AMP 77기, 벽성이엔지 대표이사) 원우가 AMP 77기 단체로 5천만원 기탁을 약정했고, 경영 81 동기회는 기존 2억3천만원 기탁에 이어 7천만원 추가 기탁을 약속했다. 또한 한영재(경영 73, 노루홀딩스 회장), 구본걸(경영 76, LF 회장) 동문이 행사 직후 각각 3억원 기탁 의사를 전했다.

대학생활의 큰 등대를 만나는 학부 신입생 동문 멘토링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2014학년도 경영대학 신입생들이 모처럼 신촌 캠퍼스를 방문했다. 2014년 3월 22일 대강당에서 열린 '2014 경영대학 동문멘토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동문 멘토링은 동문 선배들과 신입생들을 멘토-멘티로 맺는 것으로, 신입생의 대학 생활과 진로 설계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113명의 자랑스러운 멘토들

연세대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7년째 계속된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은 동문 선배 2~3명이 신입생 10여 명의 멘토가 되어 학교생활, 인생 설계 등 선배로서의 조언과 격려를 통해 신입생들이 건전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돕는 활동이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AACSB(미국경영교육인증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우수성으로 찬사를 받아 사례 발표를 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4년에도 기업, 정부 등 국내 유수의 조직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대 선배부터 졸업한 지 4~5년차의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번대의 선배 113명이 신입생들의 멘토로 나섰다.

행사에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했다. 김영진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경영 75, 한독 회장)은 멘토링의 의미를 전하며 대표 멘토들을 소개했다. 대표 멘토에는 송자 전 연세대 총장(상학 55), 정병철 전경련 고문(상학 65), 김정수 제이에스엔에프(경영 69), 김수길 JTBC 부사장(경영 74),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경영 7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경제 76), 홍중학 민주당 국회의원(경제 77), 송영길 인천광역시청(경영 81),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 대표(경영 82), 김동준 전북과대학 총장(경제 83) 등이 참여했다.

멘토라는 뜻밖의 선물

김정수(경영 69) 제이에스엔에프 회장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선택된 1%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99%를 위한 1%가 되어, 우리 사회가 선진 사회로 도약하는데 일조하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전했다. 김수길(경영 74) JTBC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영·상경대학 졸업생의 가장 큰 파워는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다. 이 두 가지를 늘 염두한 대학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그 두 가지 역량을 지닌 여러분들이 방송·언론계에도 많이 진출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멘토링에 참여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신입생들은 입학 전에 알지 못했던 뜻밖의 선물을 받는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다. 박진배 학생(경영 14)은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용현 학생(경영 14)은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나에게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해주는 것이 없는 대학생활이 조금은 혼란스럽다. 이럴 때마다 도움이 될 선배님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함께 해서 더욱 아름다운 2014년 동문 초청 행사들

2014년 연세경영에서는 동문들과 함께 하는 뜻 깊은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동문 행사는 단결과 화합을 통해 연세경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낀 특별한 시간이었다. 연세경영의 미래와 발전을 도모한 훈훈하고 아름다웠던 행사들을 모았다.

고병헌 동문과 함께 한 특별한 오찬

2014년 11월 12일 초헌학술상을 수상한 경영대학과 상경대학 교수들이 고병헌 동문(경영 64, 금비 회장)을 모교로 초청해 특별한 오찬을 함께 했다. 초헌 학술상은 고 동문이 2003년 동문회장을 역임하면서 제정했으며, 매년 모교 교수 중 연구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시상하고 있다. 이번 오찬은 역대 수상 교수들이고 동문의 높은 뜻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 동문은 학교에 오면 항상 기쁘고 유쾌하다며 환하게 웃음을 지었다. 고 동문은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스승님들이 떠오르고,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는 교수님들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많은 감화를 준다."며, "교수님들의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학술상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세 MBA 50 멘토스 포럼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은 2014년 '연세 MBA 50 Mentors Forum'을 결성했다. 포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MBA 동문 기업 경영인들의 모임으로 향후 후배 양성을 지원하고 MBA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70년대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학번으로 경영 기업 분야에 골고루 분포된 멘토들은 후배들이 훌륭한 매니저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연세 MBA는 2015년 연세 MBA 50주년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

하고 있는 MBA 동문들의 인적 자원을 결집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11월 18일 첫 모임에 참석한 멘토는 MBA 72학번 신동열(성문전자 회장), 77학번 양주현(S&S그룹 회장), 85학번 이창섭(코리아타임즈 사장), 97학번 이병진(자라리텔레코리아 대표)과 이홍구(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01학번 황재광(에프에스코리아 대표이사), 04학번 변기욱(삼화여행사 대표), 08학번 임경화(포산인더스트리 대표이사), 10학번 이은경(한민내장 대표이사), 11학번 이병민(한국베어링인켈하임 부사장), 12학번 신춘수(오디뮤지컬컴퍼니 대표이사) 등이었다.

연세경영 동문 자녀와 함께 하는 '연경프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과 경영대학 홍보대사 비즈니스(BizYon)이 동문 자녀 약 50명을 초청해 2014년 5월 17일 '연경프렘'을 개최했다. 2011년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경프렘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는 동문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프로그램은 대학 재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경영학을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조별 간담회를 통해 평소 수험생활의 고민, 대학생활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다. 김준범 학생(단대부고)은 "학교 홈페이지나 외부 자료에서 접하기 어려운 uGET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인상 깊었다. 꼭 연세경영에 입학해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다. 또한 "대학 입시를 거치며 직접 겪었던 것들을 선배들이 솔직하게 조언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로 덧붙였다.



고병헌 동문과 함께 한 특별한 오찬



졸업 50주년 60학번 및 25주년 85학번 재상봉 행사 친구야 반갑다..., 오랜만에 찾은 모교

졸업 50주년과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위해 60학번과 85학번 동문들이 모교를 찾았다. 경영대학은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문들을 반갑게 맞이했으며, 동문들은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뒤 연세경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60학번 연상 입학동기회는 3천만원을, 경영 85학번은 1억5천만원을 각각 건축기금으로 기탁했다.

졸업 50주년 60학번 연상 입학동기회는 성공적인 경영관 신축의 염원을 담아 건축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2014년 4월 23일 이장국 회장, 최동호 부회장, 한상갑 총무 등이 직접 방문했다. 대선배님들은 모교사랑과 후배 사랑에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2014년 5월 10일에는 연세대학교 창립 129주년 기념 및 졸업 25주년 재상봉 행사를 위해 경영 85학번 동문들이 대우관을 찾았다. 9시 30분 이른 아침이지만 약 30명의 85학번 동문들이 모여 지난날을 추억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박영렬 경영대학 학장은 "재상봉 행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잊고 지냈던 동문을 다시 만나 앞으로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5년이 연세경영 100주년을 맞아 85학번이 큰 주축이 되어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닦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 85 동기회 대표인 고사무열 회장은 "오랜만에 학교를 찾으니 옛 생각이 나고 기분이 좋다"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 50주년, 더 나아가 75주년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이번 재상봉 행사가 미래에 대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경영 85 동기회는 2014 재상봉 행사를 계기로 1억5천만원의 건축기금을 모교에 기탁했다.

85학번들의 한마디

유병균(경영 85)
다시 학교에 오니 좋다. 재상봉 행사는 '재충전' 같다. 좋은 건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경일(경영 85)
재상봉 행사를 통해 젊고 활기찬 후배를 보니 감동적이다. 이런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새삼 기쁘고, 이번 행사를 통해 후배·동기·선배들과의 교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홍세원(경영 85)
반갑고 오랜만에 만나니 즐겁고 감회가 새롭다.



연상 60 입학동기회 회장, 부회장, 총무 모교 방문



25년만에 모교를 찾은 85학번

유연한 사고와 자기계발을 위한 탐구, YSB A/S 특강

2012년 3월부터 학기중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졸업 동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YSB A/S(After School) 특강'은 이제 연세경영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양한 주제, 경영과 철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최고 수준의 강의로 졸업 동문들이 유연한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16회 홍성태 교수 '브랜딩 없는 마케팅은 영혼 없는 인간과 같다'

2014년도 첫 YSB A/S 특강은 특강 연사로 한양대 경영대학 홍성태 교수를 초청했다. 홍 교수는 '21세기 경영환경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브랜딩'을 주제로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마케팅에서 브랜딩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홍 교수는 '좋은 품질이 반드시 좋은 매출을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을 소개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맥도날드는 햄버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show business'를 한다. 맥도날드가 다른 햄버거 업체보다 맛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을 거머쥔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브랜딩을 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entertaining' 측면의 사례로는 '편 마케팅'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소개했다. 사우스웨스트는 기존 항공사 요금의 반 정도의 요금을 받고, 승무원들이 "담배를 피우실 분들은 비행기 날개 위에서 피우시면 됩니다"라는 농담을 하는 새로운 서비스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제17회 설혜심 교수 '세계제국의 흥망성쇠: 영국사의 교훈'

설 교수는 무엇이 최초의 강대국인 영국을 만들었으며, 무엇이 쇠망하게 했는지, 진정한 강대국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설 교수는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던 영국이 16세기 말에 종교개혁, 르네상스, 명예혁명 등을 거치며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발 전의 근본이 되었던 많은 상당한 요소들이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작용해 그 힘을 약화시켰다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

서 설명했다. 또한 영국은 신사의 나라로 불릴 만큼 엘리트주의가 강함에도 그에 반하는 개념인 공론장이 활성화된 과정, 최초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를 비판하는 신사적 자본주의가 강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18회 서은국 교수 '행복의 기원'

행복 심리학자인 서은국 교수가 '행복의 저력'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철학자들이 고대부터 논의해 온 행복은 친숙하고도 직관적인 개념이지만, 오히려 실제 행복의 개념은 체계적이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투자하는 성취, 외모 등의 상관관계가 15% 미만이라는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 작은 비율의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행복은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행복에 장기적인 효과는 가져다 줄 수 없다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행복 지침서들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타고난 유전적 성질과 개인이 인식하는 감정적인 체함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19회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Mining Minds-빅 데이터, 욕망을 읽다'

현업에 있는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이 인간의 욕망을 보는 행위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 강연했다. 송 부사장은 자신의 주된 분야인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은 하나

의 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마인드 마이닝(Mind Mining)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휴식이란 전자기기를 꺼놓는 것이지만 현대의 젊은이들은 전자기기를 두 가지 이상을 켜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마인드 마이닝이라고 했다. 송 부사장은 우리의 삶을 읽음으로써 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상품 판매의 핵심 과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20회 김지홍 교수 '공감경영과 커뮤니케이션'

김지홍 교수는 공감과 소통은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뿐 아니라 비즈니스 업계 실무에 있는 졸업생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원활한 대화와 소통을 위해 인간의 다름을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공감과 경청의 대화와 I-message 대화법을 제시했다. I-message 대화법은 '나'를 주어로 시작하는 대화로 상대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화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각 개인이 상대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다섯 가지 언어인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언어'를 언급했다. 칭찬, 감사, 격려 등의 '인정하는 말', 대화와 경청 등 '함께하는 시간', 상대가 원하는 '선물', 챙겨주기, 돕기 등 '봉사', 사랑을 전달하는 '스킨십' 등을 통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내야 적절한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제21회 이학배 교수 'Something Invisible'

이학배 응용통계학과 교수의 특강은 빅 데이터와 통계를 주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거품을 돌아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환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담론을 다루었다. 이학배 교수는 "최근 빅 데이터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몰리지만, 이에 비해 사람들이 통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강의 전반에 걸쳐 상관계수를 잘못 해석한 실제 사례와, 감성에 의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한 오남용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이 교수는 "차갑게 느껴지는 숫자에도 감성이 있다. 잘못 해석한 통계적 지표를 빅 데이터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제22회 박영렬 교수 '2015 글로벌 환경변화와 기업대응 전략'

2014년 마지막 A/S 특강을 맡은 박영렬 교수는 2014년도 글로벌 경영·경제 주요 이슈, 2015년 전망, 이를 대비한 기업들의 전략을 하나 둘씩 펼쳐나갔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인한 한국 수출증가율 감소세를 지적하는 등 한국 경제 현황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는 '2015년의 중요성'을 통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큰 변화를 강조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주도의 패러다임이 다시 선진국 주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2015년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는 말로 어느 시기보다 기업들의 변화와 혁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김지홍 교수



설혜심 교수



서은국 교수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이학배 교수



박영렬 교수

연세경영,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다 세계로 뻗어가는 Global YSB

연세대 경영대학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학을 넘어 글로벌 경영대학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4년, 연세경영은 세계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는 한편, 다양한 해외 우수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키워나갔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는 연세경영의 2014년 활동을 숫자로 만나본다.



349

경영학 과목 이수 외국인 교환학생 수

해외 교환학생 협정교 수

741

경영학 교육 인증

EFMD, AACSB, KABEA 등 인증기관이 정한 경영교육 관련 기준을 경영학 교육 기관이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경영대학이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경영학 교육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한다.

EQUIS(the European Quality Improvement System)

EFMD(European Foundation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부여하는 인증으로, 전략, 교육 프로그램, 학생, 교수, 국제화, 산학협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AACSB(The 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 of Business, 세계경영대학협의회)

미국 내 주요 경영대 학생들이 1916년 설립한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세계적인 경영대학이 갖춰야 할 요건을 정해놓고 이를 충족시킨 경영대학에 인증을 부여한다. AACSB 인증을 받은 학교끼리는 학점 교환이나 유학 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KABEA(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Accreditation,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한국 경영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공헌, 경영교육의 체계적 관리와 특성화, 수요중심 경영교육의 체계화, 성과중심 교육관리, 자발적인 참여 유도, 외부인증 평가기관 기준과의 연계를 주요 평가 지표로 한다.

연세 Global MBA ·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복수학위

연세대에서 3학기 동안 30학점,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2학기 동안 24학점, 총 14개월 동안 54학점을 이수하면 Global MBA 학위와 M.S in Finance 학위 모두를 획득한다. 2014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프랑스 에덱 경영대학(EDHEC Business School)

2014년 3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학기 동안 프랑스 에덱 경영대학 학부 학생 14명이 연세경영이 제공한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이코노미스트 세계 풀타임 MBA 랭킹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일정 조건을 갖춘 MBA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의 우수성, 교수진, 동문 네트워크, 학생 구성의 다양성, 경력개발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세계 100대 풀타임 MBA'를 발표한다. 연세대 글로벌 MBA는 2011년부터 국내 유일하게 100대 MBA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세계 파트타임 MBA 랭킹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가 평가한 랭킹으로 연세대 코퍼레이트 MBA는 2010년 국내 최초로 랭킹에 진입한 이래 최장기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학부 uGET

글로벌 산학프로그램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프로젝트 미션을 받아, 이를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팀별 활동이다.

MBA GET 및 GFT(Global Field Trip)

GET 및 GFT는 여름 또는 겨울학기에 세계 명문대학을 방문해 약 1주일간 수업을 듣고 현지의 기업을 방문해 경영 실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세계기업 현장실습

학생들이 해외기업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2014년 도에는 태국 방콕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진출 전략 등을 고찰했다.

세계적 시각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 리더를 양성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3대 핵심가치

3대 핵심가치는 연세경영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다. 연세경영은 3대 핵심가치를 실현하며 연세경영인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물론,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갈 경영 리더들의 인성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 연세경영의 교육 미션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직접 참여도가 높은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커리큘럼(CLC, 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을 도입하여 창의성(Creativity), 윤리성(Integrity), 글로벌 시각(Global Perspective) 세 가지 핵심가치 함양을 추구한다.



CLC 프로그램 개요

Category	프로그램	Creativity	Global perspective	Integrity	
Problem Based & Community Based Learning	uGET (undergraduate Global Experience Team-project)	uGET-L (Large company)	★	★	★
		uGET-E (Entrepreneurial company)	★	★	
		uGET-S (Social enterprise)		★	★
		uGET-G (Global-united)	★	★	★
		UGET-P (Platform)	★	★	★
		uGET Internship		★	★
	경영자문 봉사프로젝트	YCCP (Yonsei Community Consulting Project)	★		★
		YMCP (Yonsei Microfinance Consulting Project)	★		★
	CLC_Global	IBCC (국제비즈니스사례경진대회)	★	★	
		세계기업현장실습	★	★	
Leadership Mentoring	Mentoring	신입생동문멘토링	★		★
		YSB멘토링과 경력개발세미나	★		★
		Creative Leadership 포럼	★	★	
		외국인학생 대학생활설계		★	★
	리더십개발	In Search of Leaders	★	★	
		RC101			★
		RC102			★
		리더십마일리지 인증제	★	★	★
Core Value Forum	핵심가치포럼	연경리더스포럼	★	★	★
		글로벌경영포럼		★	★
		창조경영포럼	★		★
		기업윤리포럼	★		★
		경영학자 양성세미나	★	★	
		창업하기	★	★	
Liberal-Arts element embedded	인문학적 소양강화	위대한 유산: 생명과 인간	★		★
		Great Books & Debate	★		★
		연세-CMC리더십	★	★	

새로운 시대의 리더 양성과 창조적 가치 탐구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젊음의 열정. 연세경영의 학부 프로그램은 높고 푸른 꿈을 간직하고 있다. 100년의 노하우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 양성과 창조적 가치 탐구에 앞장서는 연세경영.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비상은 계속되고 있다.

창업하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아이디어

연세경영이 2014학년도 2학기에 '창업하기' 수업을 신규 개설하였다. 이 수업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박상용 교수, 사회학과 김용학 교수, 공과대학 이재용 교수가 힘을 합쳐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설했다. 무엇보다 창업 1세대라 할 수 있는 김정주 NXC대표, 이재용 다음 창업자 겸 소풍 대표, 김정수 JS&F 회장, 박지영 컴투스 창업자, 문규학 소프트뱅크 사장 등이 수업에 함께 참여해 학생들의 창업 멘토 역할을 했다.

총 8개 팀이 한 학기 동안 준비한 사업의 최종 보고는 마치 기업의 신사업 발표 보고회를 방불케 했다. 따로 화분에 물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수분이 공급될 수 있는 화분을 고안한 '에덴 그린'팀의 '오아시스'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아이템이 인정받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Young Social Entrepreneurs Programme'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만 코스트코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부 팀원이 출장 중인 '브랜드나와'팀은 새로운 개념의 직도매 서비스를 제안하며 B2B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창업이 매우 구체화된 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창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이브라더스'팀의 그룹 기반의 클라우드 연락처 애플리케이션 'Peoplelink'를 소개했다. '아우름플래닛'팀은 온라인의 관심 있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liner'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했다. 향후 실리콘 밸리 진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팀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아리 인액터스 세계 대회에서 성과 잇따라 올려

연세대학교 동아리 인액터스(지도교수 경영대학 김동훈 교수)가 세계 대회에서 잇따라 성과를 올렸다. 201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인액터스 월드컵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34개 대학 중 16개 대학을 뺏는 준결승전에 올랐다. 이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Young Social Entrepreneurs Programme'(이하 YSE)에서는 우승으로 사업 개발 지원금 SGD10,000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1975년 싸이프(SIFE)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인액터스는 현재 36개국 1,600개 대학교 6만6천명 이상 대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인액터스는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펼친다. 한국에서는 2004년 연세대학교가 처음 도입했다.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에덴 프로젝트'와 '동네빵네 프로젝트'이다.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한 인액터스 팀은 200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11월 싱가포르 YSE 대회에서는 '에덴 프로젝트'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 대회는 아쇼카, 맥킨지앤드컴퍼니, 인시아드 등 전문 경영컨설팅 기업의 후원을 받아 초기 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 영향력이 크고 지속 성장성이 높은 팀의 사업 개발을 지원한다.

에덴 프로젝트 발표를 지켜 본 심사위원들은 지난 2014년 3월 대비 가장 발전을 이룬 팀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매우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연세경영의 지원으로 대회에 참가한 김상수(경영 10), 오영주(경영 11), 홍이연(경영 11) 인액터스 회원은 우승했다는 사실도 기쁘지만, 1년 가까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값진 경험을 했다는 것이 더 기쁘다고 밝혔다.



프랑스 EDHEC 학생, 한 학기 단체로 맞춤형 커리큘럼 이수 - YONSEI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 2014

"연세경영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기로 한 것은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굉장한 교수님들께 많이 배워 감사드리고 싶어요."(Nicolas Weck)

2014년도 1학기 정규학기 개강과 동시에 시작된 Yonsei Global Manager Certificate Program(GMC)에 참여했던 프랑스 EDHEC Business School 학부 학생 14명은 2014년 3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은 교육 역량과 인프라가 비슷하고 글로벌 명성을 갖춘 두 학교가 학부 레벨에서 한 학기 동안 단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파견 학생들의 니즈에 맞춘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EDHEC 학생들은 경영대학 교수진으로부터 'Business Negotiation'(담당 박헌준 교수), 'International Management'(담당 최순규, 박주영 교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어학당 강사들이 진행하는 'Project Management', 'Business Model Development', 'Cross Culture and Communication Skills' 등 총5개 과목을 수강했다. 해외 대학생들이 한국의 기업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이라 할 수 있다. 먼 나라 한국을 방문한 EDHEC 학생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은 각종 공연과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경영대학의 글로벌 경영학회인 'GMT'와 글로벌 동아리 '멘토스 클럽'의 회원들이 프랑스 학생들과 1:1 친구를 맺는 버디(Buddy) 프로그램도 갖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만나 EDHEC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왔다.



uGET 10기 국내외 모듈 동시 진행

2014년 8월 27일 연세경영의 CLC(Creative Leadership Curriculum) 중 가장 대표적인 uGET 프로그램 10번째 기수가 여름 내내 각기 다른 국가와 기업에 파견을 다녀왔다.

uGET 10기는 총 10개 팀의 프로젝트로 총 5개의 파트너 기업, 중국, 미국, 호주 4개국과 국내에서 진행되었다. uGET은 그 동안 대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다. 2013년 창업생태계 성장을 위한 우수 사례를 조사해 국내적 대안을 함양할 수 있는 uGET-P(Platform) 모듈, 연세대 학생 두 명과 현지 대학 학생 두 명이 함께 팀을 이루는 uGET-G(Global company/team) 모듈을 추가했으며, 2014년에는 최초로 국내 프로젝트인 uGET-D(Domestic) 모듈을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상해와 대만에서 활동한 이랜드 2개 팀은 전체 매출의 30~40%를 이끌 수 있는 앵커 상품을 찾는 데 주력했다. 미국과 국내에서 활동한 Yonsei JSC 2개 팀은 수많은 기업을 방문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도에 관해 연구했다. 특히 미국 팀은 청소년 진로교육의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조사해 국내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어 국내팀은 한국 진로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토대로 효과적인 진로적성 교육 모델을 제안했다. 이외에 2014년 최초로 도입한 국내 프로젝트 uGET-D(Domestic) 모듈에 참가한 네이버 2개 팀은 각각 20대 모바일 사용자의 글쓰기, 정보 콘텐츠 습득 행태를 분석해 신규 서비스를 제안하고, 사용자 조사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에 네이버 관계자는 "정갈한 소비자 분석을 통해 나아갈 방향에 관한 키 인사이트(key insight)를 제시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50년을 이어온 글로벌 리더의 산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연세경영 MBA가 2015년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최고의 교육과정과 혁신적 연구,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세상으로 향하는 변화를 완성해나가는 연세경영 MBA. 50년을 이어온 글로벌 리더 산실의 2014년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세계가 입증한 국내 최고, 연세 MBA

국내 최고 수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프로그램이 세계를 통해 그 우수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풀타임 Global MBA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2014 세계 100대 풀타임 MBA'에서 국내 유일하게 100위권에 들었다. 파트타임 MBA를 평가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이하 FT)에서는 파트타임 Corporate MBA가 56위에 올랐다. 풀타임은 4년 연속, 파트타임은 5년 연속 랭킹에 든 것이다. 올해 풀타임 및 파트타임 MBA 모두 세계 랭킹에 오른 대학은 국내 대학 중 연세대 MBA가 유일하다. Global MBA 세부 평가 결과를 보면 '동문 네트워크 규모'(Breadth of alumni network)에서 5위, '동문 역량'(Potential to network)에서 28위, '동문의 국제화 정도'(Internationalism of alumni)에서 48위 등 상위권에 올라 동문 네트워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전 세계 대학들의 파트타임 MBA를 평가한 FT 랭킹의 경우 100위권에 든 대학 대부분이 임원과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평가 대상이었다. FT 평가지표 중 졸업생 연봉과 급여 인상률이 각각 20%로 전체 40%를 차지, 평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중간관리자급은 임원이나 최고경영자들에 비해 연봉과 급여 인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평가에 불리했다. 그럼에도 연세대 Corporate MBA가 56위를 차지한 것은 더욱 주목된다.

MBA Inspiring Journey,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통한 리더십 개발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 1월 23일부터 8일 간의 일정으로 연세 MBA Inspiring Journey 프로그램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리더가 갖추어야 하는 리더십, 인내심, 화합 등의 덕목들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4박5일 동안 나야풀-고라파니-푼힐-간드링-담푸스-페디 코스로 트레킹을 하였다. 프로그램 담당 교수인 박용석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참가 학생 중 한 명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팀원들이 잘 이끌어 모두가 무사히 일정을 마쳤다"며 "리더의 덕목 중 하나인 '화합'이 잘 드러난 프로그램이었다"고 회고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FMBA 박현준 원우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네팔의 모습에서 느끼는 바가 컸으며 앞으로 연세 MBA 체험형 프로그램이 개발도상국가와 같이 평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나라 위주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GMBA 리우 훠린(Liu Huilin), 한하오(Han Hao) 원우는 새벽 4시에 일어나 3,200m 고지의 안나푸르나를 트레킹하면서 걷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생의 매우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 소감도 함께 전했다. CMBA 이용일 원우는 히말라야에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히말라야 대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초에서 최고를 향해 가다! - Global MBA 15주년 기념 행사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은 2014년 11월 27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Global MBA(이하 GMBA) 15주년 기념 동문 초청 행사를 가졌다. 연세대 GMBA는 1998년 한국 경영대 최초로 설립된 주간 풀타임 영어 MBA 프로그램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하게 영국 이코노미스트 선정 '세계 100대 MBA'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행사에는 GMBA 설립 당시 경영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던 정구현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영대학 장대련 교수(마케팅 전공), 최순규 교수(국제경영 전공)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날 GMBA 졸업생 이희성 동문(인텔코리아 대표)은 기조연설에서 변화하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키워드로 'Connect', 'Share', 'Social'을 제시했다. 정윤환 동문(GMBA 2001, 마쉬코리아 재직)은 인적 구성의 다양성 때문에 연세 GMBA를 선택해 많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서 다양한 국적의 GMBA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긴 띠를 만들어 '사랑한다 연세여'를 열창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가를 부른 라이언 롤로우 동문(GMBA 2011, 현대캐피탈 재직)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것 자체가 '연세 GMBA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행사가 끝난 후 박영렬 원장은 2015년 완공되는 경영관에서 다시 만나자며 졸업생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그는 지난 15년이 연세 GMBA가 최초로 실현하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의 15년은 최고에 도전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 MBA, 경영사례분석대회 교육부장관상 및 우수상 수상

연세 MBA가 2014년 11월 15일 개최된 '2014 MBA 사례분석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해 2개 팀이 신한은행장상과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 대회는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머니투데이와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후원한 행사로 2009년도에 시작되었다. 국내 우수 기업들의 경영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미래를 위한 경영 대안까지 제시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번 대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참신한 사람들'팀은 Corporate MBA에 재학 중인 유정윤, 오윤지, 이원석, 송자용 원우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Corporate MBA 재학생 이성훈, 이윤석, 김경희, 심영민 원우의 'Nuovo Shinhan'팀과 Finance MBA 재학생 박현준, 함주현 원우가 함께한 'Blue Label'팀이 각각 신한은행장상과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사례분석대회는 어느 때보다 엄격한 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참가팀들은 '신한은행의 따뜻한 금융 미션을 실행하기 위한 5P 관점의 효과적인 통합 마케팅을 위한 전략 수립' 또는 '저성장기 신한은행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 수립' 등 두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경연을 펼쳤다.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참신한 사람들'팀의 유정윤 원우는 "MBA 과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좋은 경험을 쌓았고, 특히 2년간 함께 했던 원우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더욱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눈부신 학문적 성과로 연세경영을 빛낸다

연세경영 석·박사 과정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 환경 속에서 시대를 이끄는 전문성과 진리 탐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해외 국제 우수 저널에 공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국제 학술 대회에 논문이 채택되는 등 눈부신 학문적 성과로 거두고 있다.

김필수(박사 13) · 유재준(석박통합 12), EU 논문대회 대상 수상

김필수 학생(박사 13)과 유재준 학생(석박통합 12)이 제6회 연세-SERI EU센터 대학(원)생 EU 논문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EU와 관련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자유 주제로 2014년 5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두 학생은 유럽시장 진출국가의 유럽연합 가입여부, 인수기업의 국제 인수합병 경험, 두 국가 간의 문화·지리적 차이가 신흥국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략의 인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인수선택 전략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현상을 기업 수준에서 조명한 데 반해 이번 연구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고 실증적 연구를 했다는 점,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던 인도와 같은 신흥국 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김필수 학생은 “이번 논문대회에 참여하면서 유럽에 대한 경영학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종결선으로 채택된 지원자들의 전공은 정치외교, 국제관계 전공자

들이 많았고, 두 학생만이 유일한 경영학 중심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이들은 시상금 중 120만원을 '120만원 5,000명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에 기부해 훈훈함을 더했다.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전공), 석사 졸업논문 대학원 선정 우수논문상 장려상

김지연(박사 14, 마케팅 전공) 학생의 석사 졸업논문이 2014년 1학기 대학원 선정 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졸업 논문 주제는 “멀티채널의 판매성과와 지역 환경”으로 최정혜 교수가 지도했다.

김지연 학생은 “연세경영의 훌륭한 연구 환경과 주심교수님을 포함한 다른 교수님들의 배려 덕분에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석사 논문은 멀티채널 마케팅 분야의 연구로 소비자들에게 소핑방법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복합쇼핑채널에서의 판매성과를 지역적으로 살펴보고 온라인 채널과 모바일 채널이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 관련 연구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인용 · 이보경 박사과정 학생 AKMS 아모레퍼시픽 최우수 대학원생 논문상 수상

경영학과 매니지먼트 분야 재학생 신인용 학생(박사 10), 이보경 학생(석박통합 11)이 2014 AKMS 선정아모레퍼시픽 장학금을 수상했다. AKMS(Association of Korean Management Scholars)는 매년 AOM(Academy of Management) 연례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을 선정해 아모레퍼시픽 장학생 2명과 삼성경제연구소 장학생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아모레퍼시픽 장학금은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장학생은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선발된다. 접수된 총 28편 중 아레퍼시픽 장학생은 모두 연세대 경영대학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신인용, 이보경 학생이 제출한 논문 제목은 각각 “Extant Network Brokers and Current Project Teams”, “Roles of Positive and Negative public Discourse and Performance Feedback on Strategic Deviance”이었다.

논문 공저자로 활약

SSCI 국제우수

신일항(박사 12, 회계 전공)

Implementation of Interorganizational cost management and its infrastructure: the case of a Korean 'Chaebol' firm,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21(2): 228-250, 2014.06(published online)

오윤숙(박사 10), 강민정(박사 11), 표경민(박사 10) : 회계 전공

Does continuous auditing enhance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Korean evidence, *Asia Pacific Journal of Accounting&Economics*, 21(3): 284-307, 2014.02(published online)

기타 국제학술지

노민영(박사 11, 회계 전공)

The Effect of Auditor provided tax services and aggressive reporting, *Information-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47:89-92, 2014

오윤숙(박사 10), 강민정(박사 11), 배창현(박사 13) : 회계 전공

The Effect of CEO Change on Information Asymmetry, *Th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30(2):527-540, 2014.March/April

학진등재지

강하영(통합 07, 마케팅 전공)

한국의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

할과 과제, *KBR*, 18(4): 159-182, 2014.11

김민성(석사 13, 정보시스템 전공)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한 협업필터링의 특이취향 사용자(Gray Sheep) 문제 해결, *지능정보연구*, 20(1): 137-148, 2014.06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전공)

공급망에서 사급거래 계약이 1차 협력사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5(4): 319-342, 2014.11

노민영(박사 11, 회계 전공)

환위험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3(5): 349-377, 2014.10

노민영(박사 11), 박현영(박사 12) : 회계 전공

감사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와 외관상 독립성- *회계학연구*, 39(3): 215-247, 2014.06

배창현(박사 13, 회계 전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연구*, 19(2): 1-28, 2014.04

손정민(박사 08, 마케팅 전공)

가격판촉 빈도에 의한 준거가격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25(1): 61-85, 2014.02

신혜선(석사 07, 마케팅 전공)

보상물 프로그램의 미래보상크기가 보상물 가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객충성도 조절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7(2): 243-262, 2014.02

이성원(박사 11), 강혜빈(석사 13), 이승원(석사 13) : 정보시스템 전공

인기도 기반의 온라인 추천 뉴스 기사와 전문 편집인 기반의 지면 뉴스 기사의 유사성과 중요도 비교,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2014-2016, 24(2): 191-210, 2014.06

신일항(박사 12, 회계 전공)

사업 영위 형태와 실제이익조정 - 수주업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회계저널*, 23(4): 299-337, 2014.08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양적 질적 측면의 인적자원 투자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특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부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회계-세무와감사연구*, 56(1): 57-88, 2014.06

상품시장 경쟁이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3(4): 1029-1058, 2014.08

상품시장 경쟁과 감사보수 결정, *회계학연구*, 39(6):229-265, 2014.12

산업 내 경쟁정도와 실제이익조정 - 기업지배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39(3): 57-90, 2014.06

이윤애(석사 11, 재무 전공)

대규모기업집단과 중견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거래의 효율성과 터널링, *재무연구*, 27(4): 567-601, 2014.11

이준섭(박사 11, 마케팅 전공)

온라인 구전의 심리적 거리와 감정 사이의 적합성이 선호도와 재 추천의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29(4): 45-67, 2014.08

이한근(박사 11, 마케팅 전공)

제휴 파트너 선택 기준의 매력도가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휴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마케팅관리연구*, 19(2): 67-90, 2014.04

임지선(박사 05, 매니지먼트 전공)

소셜미디어 연구동향 분석: 사회과학분야를 중심, *정보통신정책연구*, 21(2): 87-124, 2014.06

정현승(석사 13, 마케팅 전공)

코스맥스의 양손잡이 전략, *KBR*, 18(1): 177-199, 2014.02

최재호(석사 13), 정종빈(석사 11) : OR 전공

외환 시장 포트폴리오 선정 모형과 투자 알고리즘 개발 및 성과평가, *한국경영과학회지*, 39(2): 83-95, 2014.06

표나성(박사 07, 매니지먼트 전공)

기업의 여유 자원이 이해관계자 만족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재무적 성과와 사회공헌 활동의 상호작용분석, *조직과 인사관리 연구*, 38(1): 69-92, 2014.02

김동희(석사 11, 오퍼레이션 전공), 이한근(박사 11, 마케팅 전공)

육군 군수조직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지휘관들의 역할: 탐색적 연구, *로지스틱스연구*, 22(1): 89-111, 2014.02

수문이(석사 11, 매니지먼트 전공)

가족친화제도 활용과 여성관리자의 조직몰입: 인사제도 공정성과 차별경험 인식의 조절효과, *조직과인사관리연구*, 38(2): 27-52, 2014.05

학진 등재후보지

유승희(석사 12, 매니지먼트 전공)

관계적 인구통계학 연구: 메타분석 및 질적 분석을 통한 종합적 이해, *연세경영연구*, 51(1): 1-40, 2014/봄호

주요 학술대회 논문 채택 및 발표 사례

이름	전공	학술대회명	지역
김수연(박사 13)	오퍼레이션	Global Marketing Conference at Singapore	싱가포르
김신영(박사 12)	오퍼레이션	Global Marketing Conference at Singapore	싱가포르
김지영(박사 11)	마케팅	2014 Global marketing Conference at Singapore	싱가포르
김필수(박사 13)	국제경영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캐나다 밴쿠버
김효진(박사 13)	오퍼레이션	Academy of Management	미국 필라델피아
노민영(박사 11)	회계	2014 International Workshop on Business	한국 제주
노민영(박사 11)	회계	2014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Meeting	미국 아틀란타
박철우(통합 12)	마케팅	제 16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한국 대구
양이(박사 13)	국제경영	The First HR Divi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중국 베이징
양이(박사 13)	국제경영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캐나다 밴쿠버
유재준(통합 12)	국제경영	2014 The First HR Divisio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Academy of Management	중국 베이징
이보경(통합 11)	매니지먼트	Academy of Management	미국 필라델피아
이준섭(박사 11)	마케팅	2014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서울
정대훈(박사 13)	매니지먼트	European Groups for Organizational Studies	네덜란드 로테르담

최신 경영을 통한 기업의 올바른 이해

연세경영의 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를 자랑하는 경영자 과정이다. 미래를 보는 탁견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 개발로 기업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경영자를 양성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은 2016년 탄생 4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최고경영자과정

연세경영 AMP는 기업 또는 관련 조직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최신의 경영 기법과 전략 체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최고경영자로서의 다양한 자질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기업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연세경영 AMP는 국내에 개설된 최초이자 최고의 최고경영자과정 프로그램이다. 그 뿌리는 195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세경영은 우리나라 최초의 최고경영자강습회를 온양철도호텔에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했는데, 사례 연구와 비즈니스게임 교육방법을 처음 도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차후 최고경영자과정과 같은 산학협동 교육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1976년 3월, 경영대학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해 한 학기 경영자 과정을 개설한 것이다.

이후 선진 경영과 리더십, 그리고 인문학에 걸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경영의 시야를 확대하고 능력과 소양을 배가시키면서 발전해온 연세경영 AMP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77기의 과정을 수료하며 총 4,250명의 원우를 배출하고 있다. 또한 연세경영 AMP는 2016년 탄생 4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오랜 역사와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한다.

경영과 인문학적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커리큘럼

2015년 AMP는 최신 이론과 시장 이해를 통해 경영혁신 역량을 함양시키는 '경영 에센스' 모듈,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 해외 시장을 향한 동력을 개발하는 '글로벌 가치 창조' 모듈,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찾아보는 '미래 성장 트렌드' 모듈,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소통과 리더십 개발을 추구하는 '휴먼과 웰빙' 모듈 등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모듈과 관련된 특별한 주제를 선별 학습해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경영 에센스' 모듈은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고 창조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최신 이론을 학습하며, 글로벌 경제와 산업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경영혁신과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모듈은 경영의 본질, 불황 극복, 경영 혁신, 경영의 뉴 패러다임 등의 영역으로 나눠 경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경영의 본질을 파악해 마케팅과 혁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 재무와 정보시스템 등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후 Product · Process · Personnel 등 이른바 3p를 통해 불황 극복의 전략을 수립한다. 끝으로는 글로벌 경제와 한국경제 · 전략적 마인드와 전략적 변화 · 혁신의 중요성과 위력 등 전략적인 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두 번째 모듈인 '글로벌 가치 창조'는 글로벌 엘리트에게 요구되는 글로벌 마인드셋을 갖추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벌 재정 위기와 이후의 경제 전망, 그리고 불황극복 등을 살펴본 이후 SNS를 통한 글로벌 시장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시각

의 혁신을 모색한다. 또한 글로벌 엘리트 자질을 살펴보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으로 신흥국 발전과 새로운 기업환경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녹색 기술 산업과 신사업 · 이노베이션과 기업이 정신 · Human Centered Innovation 등을 학습하며, 마지막으로 시장 진입 · 글로벌 제휴 및 M&A · 글로벌 마케팅 · 재무 · HRM · SCM 등 글로벌 경영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본다.

세 번째 모듈인 '미래성장 트렌드'는 미래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방법론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성장 트렌드를 읽고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의 전략을 살펴봄, 미래의 블루오션으로 평가되는 TED 산업과 3D 산업을 학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휴먼과 웰빙' 모듈은 경영자의 자기 발견을 통한 품격 관리와 미래 설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소통과 리더십 개발로 가치 창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철학과 역사, 그리고 고전과 심리 등을 살펴보는 자기 발견과 창조적 사고,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인간 이해와 공감적 소통, 미술과 음악 등에 대한 융복합적 통찰의 안목을 기르는 예술 문화와 융합적 사고, 그리고 건강과 여가의 가치를 다루는 건강관리와 미래적 인생 등의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

AMP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네트워크의 강화

한편 연세경영 AMP는 타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이 1년 과정으로 진행할 경우 1년 1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과 달리 연 2회 선발하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세 AMP의 원우들은 과정의 전반기에는 선배 기수, 후반기에는 후배 기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는 비록 수업을 같은 강의실에서 수강하지는 않지만 바로 옆 강의실에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수업을 들으며 보다 자주 접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매년 학기 초에 상견례를 겸한 합동강의를 실시해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기도 한다.

2014년 연세경영 AMP 77기와 78기의 합동강의는 2014년 10월 1일 연세대 신과대학의 김상근 교수를 초청해 '아포리아 시대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듣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진행된 합동강의는 특강 후 상견례를 통해 선우배 원우들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연세경영 AMP는 2013년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로 한 학기 과정으로 진행한 것을 벗어나 2014년부터는 매주 수요일 1회 진행하고 1년 과정으로 변경했다.

앞으로도 연세경영 AMP는 교수에게는 최고경영자에게 어필하는 이론 개발의 기회를, CEO에게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지식과 지혜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해외가 주목하는 최고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

국내 유일의 경영자교육 전문기관인 상남경영원은 1999년 기업과 경영자를 위한 경영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상남경영원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탁월한 교육성과를 통해 해외 주요 기관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영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Executive Training Programme in Korea 8기 성공적 개최

한국 시장의 성공적인 진출 및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고자 유럽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EC(유럽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유럽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ETP Korea 8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유럽 각국에서 참여한 경영자들은 영국 런던 소재 소아즈(SOAS)대학에서 3주간 입문교육과정을 거친 후 2014년 1월 7일 입학해 2014년 11월 12일까지 약 42주 동안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기업경영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필드 트립과 다양한 한국의 역사, 문화 체험 등을 경험했다. 또한 연수기간 중 3개월 동안 국내 기업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8기 ETP Korea 과정에는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다양한 국가에서 11명의 경영자들이 참여했다. 11월 12일에 진행된 수료식에는 EU 대표부 Paolo Caridi 수석상무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Christoph Heider 사무총장, 연세대 상남경영원 손성규 원장, 한국어학당 이석재 원장, 경영대학 박용석 주임교수를 비롯한 약 70여 명의 국내 소재 유럽기업의 경영진과 주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상남경영원은 한국의 경영자 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해외 유수의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 기업과 경영자들에게 한국 경영자 교육의 탁월함을 대표하는 경영자 교육 전문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연세의료원 Mini MBA 과정, 지역과 대상 확대

제8기 연세의료원 Mini MBA 과정을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했다. 이 과정은 상남경영원에서 진행하는 과정 중 최초로 강남 지역에서 개설하는 과정이었다. 8기 과정은 연세의료원 교수진뿐 아니라 외부 협력병원 원장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의료원 Mini MBA과정은 의료원 교수들이 경영 지식을 습득해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료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에 개설되어 총 325명의 의료원 교수들이 참여했다.

이번 8기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진의 교육수요에 맞춰 특별히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진이 출강해 강의와 프로젝트 자문을 진행했다. 약 12주 동안 매주 목요일 야간 수업으로 진행된 과정은 의료 환경 변화와 혁신적 경쟁전략, 성공적인 전략 수행을 위한 리더십과 조직관리, 의로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등 의료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강의, 팀 프로젝트 등이 진행되었다.

교원그룹 핵심인재 MBA 과정 및 미래에셋그룹 임원과정 신설

상남경영원은 2014년 두 개의 신규위탁과정을 개설했다.

먼저 교원그룹 핵심인재 MBA 과정은 교원그룹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함양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 개설되었다. 전략경영 및 마케팅, 리더십, 재무회계,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 생산관리 등 경영자 교육의 근간이 되는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전일 교육으로 진행했다.



미래에셋그룹 임원과정 'The Leader's Class'는 기업의 상하를 연결해 주는 핵심 리더이자, 기업문화와 가치를 전파해야 하는 역할 측면에서 임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설된 과정이다. 미래의 최고 경영자로서 그룹 임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 확보 및 실천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미래에셋그룹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총 8회차를 운영했으며, 특히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강원도 홍천에서 1박 2일 합숙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지속적인 조교수 연구활동지원

상남경영원에서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연구펠로우십(Sangnam Institute of Management Research Fellowship)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년트랙 조교수들을 펠로우로 선발하여 평생연구자로서 필요한 창의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2014년에는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펠로우십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상남경영원은 연구펠로우십 지원을 통해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눔을 통한 연세대 커뮤니티 기여

상남경영원은 1999년 3월 개원 이후 16년간 수요일음악회를 개최했다. 수요일음악회는 학교 전 구성원 및 우리 대학교를 방문한 방문객들을 위해 수요일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진행되었다. 상남경영원 로비에서 열리는 수요일음악회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정상급 연주자들의 클래식



식 음악을 가깝게 접하며 바쁜 연구와 업무에 지친 교내 구성원들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었다. 연세대 음악대학에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교내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끊임없이 유지, 발전시키도록 상남경영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2014년 12월 19일에 진행했던 크리스마스 특별 음악회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김영호 교수의 주관 하에 피아노에 빈센트 드 브리(Vincent de Vries) 교수와 음악대학 피아노과 Y-us piano ensemble, 바이올린에 김현아 교수, 음악가 김은식, 첼로에 양성원 교수가 비발디, 글리에르, 라비냐크 등의 유명 곡들을 연주하였고, 연주료 전액은 세브란스아청소년암센터에 기부하여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행복뿐 아니라 나눔을 함께 하는 행사가 되었다.

2014년 수요일음악회 프로그램 진행 내용

- 3. 26 Peter Ovcharov(연세대 신임교수) 피아노 리사이틀
- 4. 23 Marc Coppey (파리음악원 교수) 첼로 리사이틀
- 5. 21 Music from Seoul Spring Festival (김영호, 조진주, 양성원 3중주)
- 9. 24 Viola Concert(김상진)
- 10. 22 Autumn Jazz Concert (국체콩쿠르 우승자 4중주 콘서트)
- 11. 12 Duo Bandini & Chiacchiaretta Concert(이태리 기타, 반도네온 듀오)
- 12. 19 크리스마스 특별음악회

2014년 교육과정 운영현황

구분	특징	교육과정명
위탁과정	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과정	금호아시아-MBA과정, 동원-연세 MBA과정, OCI MBA과정, 연세의료원 Mini MBA과정, 신세계 SMBA과정, 교원그룹 핵심인재과정, LF MBA과정, 철강 EMBA과정, AGC(아사히글라스초자확인테크노코리아) AMP, 삼성화재 SIL Biz-Leader과정, 미래에셋그룹 임원과정
위탁과정	분야별 전문가 양성 과정	고급마케팅전략과정, 고급기업분석과정, 프랜차이즈CEO과정
해외연계과정	글로벌 리더 과정	ETP(Executive Training Program) Korea

21세기 경영 사회를 연구하고 예측하다

경영연구소는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 개최, 그리고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 활동을 통해 정보화·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21세기 경영 사회를 연구하고 예측한다. 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경영연구소의 2014년 활동을 소개한다.

한국연구재단 융합연구총괄센터로 선정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2014년부터 12월 1일 한국연구재단의 학제간 융합 연구 지원사업의 융합연구총괄센터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융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주요 연구팀들은 2017년까지 향후 3년 동안 경영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경영연구소는 융합연구과제 성과물들이 기업을 통해 사회로 확산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 및 산업체 인력과의 연계를 주선해 폭넓은 융합연구를 통해 학문적·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융합연구를 다양한 미디어와 참여 기회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실생활에 관련된 연구주제 발굴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결과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세미나 '탑 매니저먼트의 경쟁력에 대한 고찰'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는 2014년 9월 2일 야나기마치 이사오(게이오 대학) 교수를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찬 세미나의 주제는 '탑 매니저먼트의 경쟁력-일본에서 본 한국기업의 강점과 약점'이었다. 한국 기업의 CEO상과 강·약점, 향후 기대되는 한국 기업 CEO의 역할을 일본학자의 시각에서 일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조망해 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기업가는 무언가를 처음으로 이루고 혁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경영자와는 분리해 생각해야 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의 본질은 결국 탑 매니저먼트(Top Management)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이어서 1960년대부터의 한국기업 발전을 고찰하며 역사적으로 한국기업에서는 오너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 일부 기업이 오너의 부재에 따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탑 매니저먼트가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신년세미나, 유럽기업 고찰을 통한 교훈

2015년 1월 26일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주관하고 연세대 경영대학과 BMW 유럽경영 연구센터가 주최하는 연세경영 100주년 기념 신년세미나가 조선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유럽기업의 경영모델: 레슨과 미래과제"를 주제로 강진원 한국헬스케어 대표,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 루이스 비베스(Luis Vives) 스페인 ESADE 경영대학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기업 경영의 일선에 있는 동문 CEO 및 임원, 경영대학 교수진 등 약 6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먼저 강진원 대표는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는 유럽기업들의 공통점으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경영, 장기적 시각에서의 의사 결정, 높은 위험의 회피, 분권화를 꼽았다. 이어 김효준 대표는 앞선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향후 30년을 대비하는 데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낮은 경제성장률, 천민자본주의, 갑을 관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 유럽식 경영기법에 눈을 돌릴 것을 제시했다. 루이스 비베스 교수는 유럽의 기업은 슈퍼스타나 히어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스티브 잡스를 비롯하여, 잭 웰치, 도널드 트럼프 등 스타 CE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유럽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인 기업의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해서 기업 전체의 역량을 상승시킨다고 역설했다.



국제우수학술지 게재 논문

곽주영

• Internationalization of Korean Banks During Crises: The Network View of Learning and Commit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 23, No. 6, 2014.12

김승현

• Differential Effects of Prior Experience on the Malware Resolution Process, *MIS Quarterly*, Vol. 38, No. 3, 2014.9
 • Online Gambling Behavior: The Impacts of Cumulative Outcomes, Recent Outcomes, and Prior Us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 25, No. 3, 2014.9

김지현

• When bad news is sugarcoated: Information distortion, organizational search and the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Strategy Management Journal*, Vol. 35, No. 8, 2014.8

김학진

• Dynamic faceted navigation in decision making using Semantic Web technology, *Decision Support Systems*, Vol. 6, 2014.5

박세범

• Better Moods for Better Eating?: How Mood Influences Food Choic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24, No. 03, 2014.7
 • Different Routes to Metacognitive Judgments: The Role of Accuracy Motivat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24, No. 03, 2014.7

박용석

• An Integrated multi-stage model of knowledge management in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Identifying a trigger for knowledge exploration and knowledge harvest,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 50, No. 01, 2015.1

배성주

• Internalization of R&D outsourcing: An empiric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Vol. 150, 2014.4
 • Different Routes to Metacognitive Judgments: The Role of Accuracy Motivation,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Vol. 24, No. 3, 2014.7

이동진

• Gender disparity in job satisfaction of Western versus Asian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7, 2014.6
 • The impact of incongruity between an organization's CSR orientation and its employees' CSR orientation on employees' quality of work lif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68, 2015.1

장은미

• Organizational Work-Family Culture and Working Mothers' Affective Commitment: How Career Expectations Matter,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53, No. 5, 2014.9

국제학술지 워킹페이퍼 목록

김성문

• An adaptively managed dynamic portfolio selection model using a time-varying investment target according to the market forecast

박경민

• What is a Good R&D Investment Strategy for Leaders and Followers?
 • When ties to other Organizations are Burdensome: The Effects of Competition and Web Traffic-Based Dependence on Portals on Internet Firm Failure

신동엽

• Neoliberal Marketization of Art Worlds and Status Multiplexity: Price Formation In a Korean Art Auction, 1998-2007

이호영

• How does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affect the timeliness of financial reporting?

• Related party transactions, control-ownership wedge, and firm value

최선미

• Management of customer interactions as an innovative source for improving custo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허대식

• Supplier development as knowledge transfer routines: managerial versus operational knowledge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와 우수한 인재 배출의 원동력

연세경영은 세계 유수의 명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역량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최고의 능력과 권위를 자랑하는 교수진들이 있다. 열린 사고와 창의적 시선으로 창조적 연구와 교육을 완성하는 교수진들의 활약을 소개한다.

YSB 교수진에 합류한 신입교원 5명

연세대 경영대학은 2014학년도 2학기 정년전임 2명과 비정년 전임 3명, 총 5명의 전임 교원을 맞이했다. 정년 전임으로 새로 합류한 교수진은 김승현(정보시스템), 이재영(마케팅), 비정년 전임은 이승연(마케팅), 이재홍(회계), 그리고 정기원(매니지먼트) 교수이다.

김승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싱가포르국립대학에 조교수로 6년 동안 활동하다가 이번에 연세경영 교수진으로 합류했다.

이재영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시간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 와튼스쿨에서 마케팅 박사과정을 전공했다.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로 연구하는 이 교수는 '어떠한 원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 주관심사이다.

이승연 교수는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서 학부·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생명과 씨티은행에서 4년 넘게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재홍 교수는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 경영학을 이중 전공하고, 경영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교수는 "회계학은 배울수록 실용성과 흥미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매력적인 학문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례를 통해 쉽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원 교수는 학사·석사·박사를 모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취득했다. 정 교수의 세부 전공은 경영전략이다. 주요 연구 관심 분야는 기업본부와 사업부 간의 분권화 및 자원공유와 활용, 조직학습에 기반한 기업의 다각화의 사결정이다.

정종락·김인준 교수 정년퇴임

재무 전공 정종락 교수와 김인준 교수가 2014년 8월말 정년퇴임했다. 32년간 연세대 경영대학에서의 재직생활을 마친 정종락 교수는 '행복'과 '아쉬움'으로 소감을 함축했다. 또한 연세경영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하며, '연세경영'하면 늘 따라다니던 수식어인 '가장 최초, 가장 최고, 가장 최대(The First, The Best, The Largest)'를 뛰어 넘어 '연세경영의 고유한 특성'을 확립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인준 교수는 1985년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재무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NYU 경영대학원에서 6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15년,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8년을 재직하다가 정년을 맞이했다. 국내 금융공학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김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을 쏟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후학들이 각자가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대희 교수는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매년 연구업적이 우수한 경영대학 교수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03년 제정되었다. 윤 교수는 2008년과 2012년 영향력 있는 논문을 「Management Science」에 두 차례나 게재한 데 이어, 2014년에 「Accounting Review」에 논문 "Revisiting the Make-or-Buy Decision: Conveying Information by Outsourcing to Rivals"를 게재한 바 있다.

윤대희 교수 2014 초헌학술상 수상

윤대희 교수(회계 전공)가 2014년 초헌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초헌학술상은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가 매년 연구업적이 우수한 경영대학 교수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2003년 제정되었다. 윤 교수는 2008년과 2012년 영향력 있는 논문을 「Management Science」에 두 차례나 게재한 데 이어, 2014년에 「Accounting Review」에 논문 "Revisiting the Make-or-Buy Decision: Conveying Information by Outsourcing to Rivals"를 게재한 바 있다.

최정혜 교수 MSI '2015 Young Scholar' 선정

최정혜 교수(마케팅 전공)가 마케팅 연구의 최고 권위 기관으로 알려진 MSI로부터 '2015년 Young Schol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MSI(Marketing Science Institute)는 미국의 권위 있는 마케팅 기관으로 1961년에 설립된 이래 마케팅이론과 실무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마케팅 연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를 학회나 워크숍을 통

해 널리 알리고 있다.

MSI는 2001년부터 격년으로, 연구 업적이 탁월한 마케팅 신진학자들을 'Young Scholar'로 선정하고 이들의 학술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선정된 신진학자들은 4일간 서로 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된다. MSI 2015 Young Scholar 프로그램에는 2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정혜 교수는 코넬대 박영훈 교수와 예일대 신지웅 교수에 이어 한국인 참석자로서는 3번째이다.

장대련 교수, 쌍둥이 동생과 함께 <트랜스 시대의 트랜스 브랜딩> 도서 출간

장대련 교수(마케팅 전공)가 <트랜스 시대의 트랜스 브랜딩>을 출간했다. 이 책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장동련 교수와의 공저로, 두 사람은 마케팅과 디자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강의를 펼친 쌍둥이 형제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트랜스 시대의 트랜스 브랜딩>은 미디어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 맞물리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트랜스(Trans)'라는 용어로 정의한 책이다. 이들은 그간 White Paper, 논문, 기고문 또는 HBR Online 블로그 등을 통해 접한 '트랜스'의 개념 정의와 특징 그리고 기업의 브랜드 전략을 종합해 제시하고 있다.

박명렬 교수 절강대 경영대학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

박명렬 교수가 2014년 10월 중국 절강대학교 경영대학(Zhejiang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국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절강대 경영대학은 학부, MBA, 석박사 프로그램을 모두 갖추고 있고, EQUIS와 AMBA 인증을 획득한 경쟁력 있는 대학이다. 2005년부터 우리 대학과 교류 협정을 맺어 왔다. 연세대 경영대학은 절강대 및 중국 대학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국 시대를 여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허대식 교수 세계적 저널 부편집인 임명 및 Best Reviewer 수상

허대식 교수(오퍼레이션 전공)가 세계 탑 저널인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의 부편집인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2013 Best Reviewer에 선정되었다.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는 오퍼레이션 분야에서 세계적인 저널 중 하나로, 투고된 논문의 4%만이 통과될 정도로 권위 있는 학술지이다. 특히 'Best Reviewer'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활동을 했던 심사위원을 편집인과 부편집인들이 선정하는 상이다.

신동엽 교수 한국인사조직학회 학회장으로 선출

신동엽 교수(매니지먼트 전공)가 2014년 4월 26일 2014 한국인사조직학회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인사조직학회는 우리나라 조직·전략·인사 분야의 대표 학회로 1990년에 출범해 학자들과 경영인들의 열띤 학문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호근 교수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취임

이호근 교수(정보시스템 전공)가 2015년 1월 6일 제23대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이 학회는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 소속이 다양한 4,000여 명의 회원 수를 가진 ICT 분야 국내 최대의 학회이다. 최근, 세계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 및 국제전자상거래 학술대회 등 국제 학술대회 유치에 성공해 국내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학술지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Systems Review」를 발간한다. 이 교수는 "앞으로 주관하게 될 다양한 국제 학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학회의 국제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오홍석 교수, 한국경영학회 선정 SERI 중견경영학자상

오홍석 교수(매니지먼트 전공)가 2015년 2월 27일 개최된 한국경영학회 제59기 동계통합학술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경영학회 SERI 중견경영



김승현 교수 이승연 교수 이재영 교수 이재홍 교수 정기원 교수 정종락 교수 김인준 교수 윤대희 교수



최정혜 교수 박명렬 교수 허대식 교수 신동엽 교수 이호근 교수 오홍석 교수 손성규 교수 이경태 교수

연세경영 교수진

학자상'을 수상했다. 2012년 제정된 이래 연세대학교 교수로서는 오 교수가 최초로 이 상을 수상했다. 오홍석 교수는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등 세계 최우수 등급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수의 저널에도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오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상당히 높은 점이 이 상을 수상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손성규 교수 연구부문 우수업적교수상 수상

손성규 교수(회계 전공)가 2015년 2월 연구처 선정 우수업적교수상(연구부문) 저역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저서는 박영사가 출판한 <회계환경, 제도 및 전략>이다.

이 책은 손 교수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과 국가 회계기준센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기초한 책이다. 회계학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와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많은 모티브와 주제를 제시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의 공무원, 공인회계사, 상장기업의 재무담당 임직원 등에게 관련 이슈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고 의사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실무 공헌도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경태 교수 교육부문 우수업적교수상 수상

이경태 교수(회계 전공)가 교무처 선정 교육부문 우수업적교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학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2014학년도 1학기와 2학기 학부 2개 과목 이상 강의한 전임교원이 심사 대상이다. 대상자 2,003명 중 이경태 교수를 포함해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연세경영 리서치 펠로우 제도 도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리서치 펠로우(YSB Research Fellow)'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우수한 신입 교수 임용을 위함과 동시에 재직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2013년도 하반기 제도 도입 후 2014년 처음으로 선정된 리서치 펠로우 교수는 손재열 교수(정보시스템 전공), 윤대희 교수(회계 전공), 임건신 교수(정보시스템 전공), 최정혜 교수(마케팅 전공)로 4명이다.

연구 관련 수상 실적

교수명	내 용
엄영호	"주택가격이 모기지 대출 조기상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요인 구조모형 접근법", 한국재무학회, 2014.11 "KOSPI200 지수 분산스왑 및 분산위험 프리미엄 기간구조", 한국거래소, 2014.6
최원욱	"조세계획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외손익 항목 조정에 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5.1
허대식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Best Reviewer Award", 2014.8
김승현	"The Effect of Repeated Ad Exposure and Physical Avoidance on Customers' Mobile Ad Respons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014.12

학회활동

교수명	학 회 명	학 회 직 위	임 기
김진우	ACM SIGCHI	조직 위원장	2014.04~2015.04
박영렬	한국경영사학회	학회장	2014.01~2015.12
손성규	대한경영학회 경영교육학회	부회장	2015.01~2015.12 2015.01~2015.12
신동엽	한국인사조직학회	학회장	2014.04~
신진영	한국증권학회	부회장	2014.01~2014.12
연강흠	한국재무학회	학회장	2014.01~2014.12
이무원	Management and Organization Review (ssci journal)	Senior Editor	2014.01~2018.12
이호근	한국경영정보학회	학회장	2015.01~2015.12
임 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부회장	2014.3~
최원욱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2015.01~2016.12
허대식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부회장	2014.01~2015.12 2014.01~2014.12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부편집인	2014.01~2015.12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편집위원	2013.01~2014.12

사회활동

교수명	기업 또는 기관명	직 위	임 기
김태현	국민행복연구회	회장	2015.01~2015.12
	M5 Investment	사외이사	2012.07~2015.06
	물류산업진흥재단	이사	2013.12~2016.11
	국가물류정책위원회(국토교통부)	위원	2014.05~2016.04
	영훈재단	이사	2013.11~2016.10
	함께 나누는 세상	실행위원/운영위원	2009.12~
	Fortune Korea	Editorial Committee 위원	2008.12~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2013.10~
박영렬	중국 철강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자문위원	2014.10~
손성규	서울보증보험	사외이사/감사위원	2013.03~2016.03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삼일 저명교수	2013.07~2015.06
신진영	NICE Holding	사외이사	2014.03~
	유안타증권	사외이사	2014.06~
연강흠	한국금융지주	사외이사	2013.03~2015.03
이무원	삼성경제연구소	자문위원	2015.02~2016.01
이호근	(주)메트릭스	사외이사	2014.03~2016.02
허대식	Asia Pacific Decision Sciences Institute	사무총장	2014~2016

전임교수

마케팅

마케팅 전공

김동훈 Ph.D.(Columbia University, 1989)
김영찬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5)
박세범 Ph.D.(Northwestern University, 2004)
박홍수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8)
오세조 Ph.D.(University of Cincinnati, 1987)
이동진 Ph.D.(Virginia Tech., 1996)
이완수 D.B.A.(University of Tennessee, 1981)
이재영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4)
임수빈 Ph.D.(University of North Carolina, 2000)
장대련 D.B.A.(Harvard University, 1986)
최정혜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0)

국제경영 전공

곽주영 Ph.D.(MIT, 2008)
박영렬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3)
박용석 Ph.D.(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00)
최순규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97)

매니지먼트

권구혁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김지현 Ph.D.(New York University, 2011)
노현탁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10)
박경민 Ph.D.(INSEAD, 2005)
박준준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0)
신동엽 Ph.D.(Yale University, 1996)
양혁수 Ph.D.(University of Minnesota, 1998)
오홍석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00)
윤세준 Ph.D.(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88)
이무원 Ph.D.(Stanford University, 2003)
이지만 Ph.D.(London School of Economics, 1998)
이호욱 Ph.D.(Texas A&M University, 2002)
장은미 Ph.D.(University of Maryland, 1993)
정동일 Ph.D.(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1997)
정승화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3)

재무

재무 전공

구본일 Ph.D.(Columbia University, 1988)

박상용 Ph.D.(New York University, 1984)
신진영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신현한 Ph.D.(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엄영호 Ph.D.(New York University, 1996)
송 자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7)
한재훈 Ph.D.(Columbia University, 2003)
김정동 Ph.D.(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4)

회계

귀랄 안드레스 Ph.D.(University of Alcalá, 2003)
김지홍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87)
문두철 Ph.D.(Baruch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001)
손성규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92)
윤대희 Ph.D.(Yale University, 2008)
이경태 Ph.D.(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1992)
이호영 Ph.D.(University of Oregon, 2000)
장진호 D.B.A.(Harvard University, 1999)
최원욱 Ph.D.(Columbia University, 1993)

O.D.I

오퍼레이션 전공

김태현 Ph.D.(Indiana University, 1986)
민순홍 Ph.D.(The University of Tennessee, 2001)
배성주 Ph.D.(MIT, 2009)
최선미 Ph.D.(Cornell University, 2001)
허대식 Ph.D.(Indiana University, 2001)

정보시스템 전공

김승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8)
서길수 Ph.D.(Indiana University, 1989)
손재열 Ph.D.(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2001)
이호근 Ph.D.(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3)
임건신 Ph.D.(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0)
임일 Ph.D.(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01)

경영과학 전공

김성문 Ph.D.(University of Michigan, 2003)
김진우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김학진 Ph.D.(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1)
박선주 Ph.D.(University of Michigan, 1999)
정예림 Ph.D.(University of Paris1, 2010)

명예 및 퇴임교수

경규학 Ph.D.(Oec HSG St. Gallen, 1979)
김기영 Ph.D.(Washington University, 1975)
김인준 Ph.D.(Columbia University, 1985)
김준석 D.B.A.(Indiana University, 1982)
송 자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7)
신영수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8)
오세철 Ph.D.(Northwestern University, 1975)
이기을 Ph.D.(Yonsei University, 1971)
이학중 Ph.D.(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1963)
임웅기 Ph.D.(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7)
정구현 Ph.D.(University of Michigan, 1976)
정종락 Ph.D.(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정중암 Ph.D.(Yonsei University, 1982)
정종진 Ph.D.(Pusan University, 1972)
주인기 Ph.D.(New York University, 1986)

강의 전담 교수

마케팅 전공

이승연 Ph.D.(Yonsei University, 2009)

매니지먼트 전공

정기원 Ph.D.(Yonsei University, 2010)

회계 전공

이재홍 Ph.D.(Yonsei University, 2013)

객원 및 연구교수

김데이빗동은 석사(Columbia University, 2010)
서용교 Ph.D.(Yonsei University, 2008)
엄지인 Ph.D.(Yonsei University, 2004)
양정미 Ph.D.(Brown University, 1987)
이희수 Ph.D.(University of Sydney, 2011)
장정훈 MBA (University of Michigan, 1978)
한진경 Ph.D.(Columbia University, 1994)

Operational Highlights

주요 지표

학부 (1인당 장학금액 단위: 만원)

Undergraduate Program	2014	2013	2012	2011	2010
재학생 수	1,928	1,852	1,827	1,879	1,847
외국인학생 비율	4.1%	4.9%	6.1%	6.5%	6.4%
교환학생 파견 수	148	139	167	111	122
영어강의 비율	35.1%	35.7%	37.6%	37.5%	34.0%
1인당 장학금액	249	263	242	254	240
등록금 대비율	35.4%	36.9%	33.6%	35.5%	31.2%

석박사

MS/Ph.D Program	2014	2013	2012	2011	2010
재학생 수	301	279	298	289	281
외국인학생 비율	23.7%	21.1%	19.1%	20.8%	24.6%
영어강의 비율	8.90%	9.68%	12.16%	13.1%	7.8%
1인당 장학금액	392	570	611	603	621
등록금 대비율	71%	60%	94%	91.0%	87.0%

MBA

MBA Program	2014	2013	2012	2011
재학생 수	458	474	501	506
외국인학생 비율	9.6%	8.6%	9.8%	9.5%
영어강의 비율	33.3%	39.7%	27.1%	28.9%
1인당 장학금액	195	184	206	292
등록금 대비율	7.7%	7.3%	8.1%	12.9%

AMP

MS/Ph.D Program	2014	2013	2012	2011	2010
재학생 수	77	82	90	106	84

상남경영원

Executive Education	2014	2013	2012	2011	2010
위탁과정 수	12	14	22	21	21
모집과정 수	5	6	8	8	9
재학생 수	689	611	1,148	1,042	1,020

* 재학생 수(Undergraduate, MS/Ph.D, MBA) : 2014-2학기 기준
 * 1인당 장학금액 : 1년간 총 장학금액/2014-2학기 재학생 수
 * 등록금 대비율 : (1년간 총 장학금액/1년간 총 등록금액)*100

Faculty

Faculty	2014	2013	2012	2011
전임교원	66	70	72	70
신임교원	5	2	5	2
퇴직교원	2	4	5	0
여성교원	9	8	8	8
외국인교원	7	8	8	8
객원교원	6	9	10	7
겸임교원	26	26	28	26
연구교원	1	2	2	2

Administrative Staff

Administrative Staff	2014	2013	2012	2011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18	17	18	18
상남경영원	10	10	10	10
경영연구소	2	2	2	2

연세경영 Leadership

경영대학 및 경영전문대학원	
학장 겸 원장	김동훈
부원장	박용석
교학부학장	임건신
기획부학장	신현한
석박사 주임교수	임건신
마케팅 분야 주임교수	김동훈
매니지먼트 분야 주임교수	오홍석
O.D.I 분야 주임교수	박선주
재무 분야 주임교수	신진영
회계 분야 주임교수	장진호
Global MBA 주임교수	이호욱
Corporate MBA 주임교수	임 일
Finance MBA 주임교수	엄영호
Executive MBA 주임교수 (4기, 5기)	최순규, 김정동
AMP 주임교수 (77기, 78기)	신현한, 임 일
학부 CLC 주임교수	양정미

상남경영원	
원장	손성규
부원장	민순홍

경영연구소	
소장	김동훈
부소장	김성문

연세경영기금 약정자 명단

연세경영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세경영은 앞으로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건축 및 발전 기금	연세생산전략연구회	1천만 원 이상	박영숙(경영 82)	이정재(산업최고위과정 1987)	황의준(MBA 2001)
10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김승제(MBA 2007/AMP 50기)	김재환(AMP 33기)	이정조(경영 73)	황일청(상학 50)
서경배(경영 81)	김범용(AMP 77기)	김구재단	김재환(AMP 33기)	이지만 교수	
	김선영	씨씨애플라자	김재환(AMP 33기)	이창훈(경영 75)	AMP 49기
	김영숙(AMP 557기)		김재환(AMP 33기)	이호근 교수	AMP 51기
10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김승제(MBA 2007/AMP 50기)	김재환(AMP 33기)	이호영 교수	AMP 52기
김영진(경영 75)	박상용 교수	박상용 교수	김재환(AMP 33기)	이흥기(AMP 47기)	AMP 60기
김정수(경영 69)	선종구(경영 68)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임건신 교수	EMBA 27기
김효준(MBA 1998)	손영식(AMP 177기)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임영균(경영 74)	EMBA 37기
박삼구(경제 63)	송자(상학 55)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임용빈(MBA 2004)	GMT(Global Management Track)
송영휘(MBA 2004)	심계원(MBA 1999)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장대련 교수	MBA 81대 총원우회
이동준(MBA 1978)	양주현(MBA 1977)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장명 교수	MBA 85대 총원우회
이재범(AMP 567기)	오재갑(AMP 527/MBA 2005)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장은미 교수	경영 64학번 동기회
	윤형근(경영 82)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전재훈(응통 75)	경영 69학번 동기회
5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전찬민(경영 86)	경영 72학번 동기회
고병현(경영 64)	이관식(경영 66)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전현철(경영 77)	경영 74학번 동기회
박지원(경영 84)	이기을 교수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정길영(MBA 2012)	경영 78학번 동기회
송승철(경영 76)	이두원(상학 58)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정대형(경영 86)	경영 86학번 동기회
심장식(경영 73)	이재용(경영 83)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정동기(경영 71)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이문일(경영 86)	이종화(AMP 537기)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정병철(상학 65)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이병무(경영 59)	장정훈 교수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정세영(MBA 2007)	백양로포럼
임부자(AMP 437기)	정구현 교수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조남준(경영 68)	상경대학 50학번 입학동창회
장홍선(경영 58)	정석주(상학 59)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조재우(경영 86)	상경대학 60학번 입학동창회
	조용선(경제 58)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조중래(MBA 2012)	상학 64학번 동기회
국민은행	최도석(경영 70)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주인기 교수	서길수 교수연구실 동문
	황재광(MBA 2001)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지대섭(경영 72)	
3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최선미 교수	교보문고
구본걸(경영 76)	AMP 73기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최영수(경영 81)	남극빙동
권은영(경영 75)	AMP 총동창회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최원욱 교수	선등문화장학재단
안용찬(경영 77)	EMBA 1기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최응열(경제 77)	영신애틀
故 임익순 교수 가족	경영 79학번 동기회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최흥식(경영 71)	
한영재(경영 73)	경영 80학번 동기회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한상학(경영 80)	
	경영 82학번 동기회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한찬희(경제 74)	5백만 원 이상
경영 81학번 동기회	경영 84학번 동기회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허대식 교수	고병순(경영 76)
경영 83학번 동기회	경영 85학번 동기회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홍선주(경영 78)	김광오(경영 83)
		김정수(경영 69)	김재환(AMP 33기)	황사용(MBA 2013)	김규명(경영 75)

김동철(경영 84)	최정훈(경영 76)	김민수(경영 77)	김필순(경제 66)	배운환(경영 88)	오윤진(경영 00)
김병환(경영 85)	최종만 교수	김명길(경영 83)	김하윤(경제 74)	배환모(경영 86)	오일선
김성수(MBA 1970)	최태균(경영 81)	김범수 교수	김한준(경영 97)	백기범 직원	오정민(경영 92)
김성진(경영 85)	한현주(경영 81)	김병규(MBA 2011)	김혁주(응통 81)	백승원(경영 92)	오종진(경영 91)
김영현(경영 79)	홍성수(경영 79)	김병목(경영 88)	김현(경제 95)	백종필(경제 87)	우덕기(경영 76)
김재훈(경영 83)	홍태호(경영 81)	김병호(경제 93)	김형배(상학 66)	변기섭(MBA 2006)	우영제(MBA 2003)
김점표(경영 85)	황병주(AMP 227기)	김봉기(경영 69)	김혜일(경영 00)	변상호(경영 91)	원재철(AMP 477기)
김정우(경영 82)	황의진(MBA 2003)	김상엽(MBA 2005)	김호석(응통 87)	서가영(석사 2013)	위진오(경영 86)
김준석 교수		김상운(경영 86)	김희은(경영 99)	서경훈(경영 94)	유병삼(경제 70)
김태호(경영 84)	MBA 85대 이글	김상호(경영 78)	노성희(경영 84)	서민규(경영 82)	유정근(MBA 1978)
남상환(경영 86)		김상훈(경제 91)	노진미(경영 02)	서태정(경영 90)	유종욱(경영 97)
문희성(경영 83)	한국정보공학	김상희(MBA 2009)	도현수(경영 86)	석희병(경영 94)	유준범(경영 04)
박대준(경영 86)		김성배(경영 97)	라현주(경영 85)	선우대룡(경영 81)	유조영(불문 83)
박선주 교수	5백만 원 미만	김세만(최고경제인과정 1993)	류승권(경영 85)	성연문(생물학 82)	유형중(경영 80)
박성래(경제 97)	가태영(응통 91)	김승규(MBA 1995)	문관형(경영 70)	성용훈(경영 00)	유홍서(경영 98)
박성호(경영 88)	강동호(경제 68)	김수관	문인수(경영 84)	성원업(경영 97)	윤대희 교수
박용석 교수	강봉섭(경영 62)	김순옥(MBA 2003)	문채형(MBA 2002)	손상국(경영 94)	윤동일(경영 98)
방동원(AMP 537기)	강성태(경영 92)	김승우(경영 86)	민총식(경영 71)	손영삼(경영 89)	윤무영(경영 89)
백상태(상학 67)	강세기(정외 87)	김영만(MBA 1994)	박경준(MBA 2009)	손영준(MBA 2004)	윤문식 직원
백창현(경영 85)	강원(경영 82)	김영수(경영 70)	박기웅(상학 60)	송갑호(MBA 1995)	윤성업(경제 88)
서진석(경영 84)	강재성 교수	김영숙(MBA 2000)	박기채(MBA 1973)	송민걸(경영 85)	윤여천(경영 85)
손원범(경영 84)	강조원(경영 93)	김영운(AMP 227기)	박미경(경영 98)	송재용 교수	윤영호 직원
신문선(경영 76)	강충진(경영 70)	김용석(경영 06)	박민희(경영 00)	송종현(MBA 2003)	윤창범(경영 91)
신태용(MBA 2008)	故 김석기(AMP 317기)	김의경 직원	박병욱(상학 66)	송태연(경영 59)	윤형식(글로벌행정학 09)
양일수(경영 82)	고광수(경영 81)	김정주(경영 84)	박병채(MBA 2005)	송하정(경영 83)	윤희목(경영 00)
오동익(경영 83)	고성진(경영 91)	김중선(경영 85)	박삼복(AMP 387기)	신봉철(AMP 597기)	이강휘(경영 05)
오일환(응통 76)	고인재(영문 87)	김중수(경영 80)	박상진(AMP 437기)	박상진(MBA 1987)	이광열(경제대학원 국제통상전공 88)
유재홍(경영 73)	고재진(경영 10)	김중윤(경영 93)	박성배(경영 92)	박성배(경영 92)	이규택(경영 72)
윤용암(경영 75)	구본택(MBA 2013)	김주홍(경영 98)	박성조(경영 90)	박성조(경영 90)	이근식
이갑재(경영 82)	구요한(건축공학 97)	김준도(MBA 2014)	박순배(AMP 317기)	박순배(AMP 317기)	이근호 직원
이경미 교수	구자경(수학 96)	김지수(경영 00)	박아영(경영 05)	박아영(경영 05)	이기석(MBA 2005)
이경호(경영 82)	구진형(수학 95)	김지연(박사 14)	박용근(경영 90)	박용근(경영 90)	이기성(경영 73)
이영섭(경영 84)	구학서(경제 66)	김지연(경영 11)	박용익(경영 84)	박용익(경영 84)	이도신(경영 92)
이주삼(경영 83)	권상원(경영 86)	김지영(경영 09)	박유라(경영 98)	박유라(경영 98)	이명우(상학 67)
이태호(경영 81)	권영대	김진석(MBA 1998)	박인식(MBA 2013)	박인식(MBA 2013)	이병국(AMP 397기)
이희환(경영 79)	권태훈(경제 86)	김진영(박사 94)	박인준(경영 03)	박인준(경영 03)	이상규(경영 72)
임경화(MBA 2008/AMP 767기)	권형록(경영 90)	김진유(MBA 1996)	박재형(석사 2013)	박재형(석사 2013)	이상도(경영 87)
임일 교수	권형주	김진형(경영 98)	박정수(경영 97)	박정수(경영 97)	이상진(응통 94)
장덕흠(AMP 717기)	권혜진(경영 93)	김진호(경영 90)	박종수(경영 86)	박종수(경영 86)	이석연(경영 87)
장석룡(경영 86)	권희전(경영 81)	김창수 교수	박지만(경영 95)	박지만(경영 95)	이수빈(경영 93)
전성기(경영 85)	김경구(경영 92)	김태근	박진배 교수	박진배 교수	이수진(경영 98)
정운섭(경영 87)	김광수 직원	김태균(경영 79)	박천택(경영 86)	박천택(경영 86)	이신호(MBA 2005)
정종모(MBA 1971)	김광원(MBA 1983)	김태성(경영 89)	박혜성(경영 11)	박혜성(경영 11)	이영신(경영 87)
조석연(경영 79)	김대균(경영 87)	김태욱(AMP 227기)	박희영(경영 87)	박희영(경영 87)	이응구(경제 80)
조성만(경영 85)	김도원(경영 04)	김태정(경영 90)	방기훈(경영 96)	방기훈(경영 96)	이용재(응통 84)
조성우(경영 93)	김동배(경영 73)	김태환(MBA 2007)	배병천(경영 92)	배병천(경영 92)	이원섭(경영 84)
최문호(경영 85)	김동주(AMP 397기)	김태환(경영 05)	배영표(AMP 537기)	배영표(AMP 537기)	이은호(경영 05)

이장원(석사 07)	정연중(경영 97)	황의용(화공 81)	이두원(상학 58)	EMBA 4기	송자(상학 55)	하나아이앤에스
이장화(MBA 2007)	정영동(경영 84)	황준호(경영 97)	전상표(AMP 42기)	MBA 87대 원우회	신현한 교수	하나저축은행
이종달(경영 70)	정영주(AMP 50기)		조종환(경영 83)	MBA 총동창회	이종화(AMP 53기)	하나캐피탈
이종보(MBA 1986)	정영한(경영 87)	EMBA 4기 장학금수혜3인		경영 83학번 동기회		
이종윤(경영 88)	정영호(응용통계 91)	MBA 52기	AMP 68기	경영 86학번 동기회	AMP 52기	
이준근(MBA 2005)	정우택(경제 59)	MBA 87기 아간통합과정	AMP 69기	경영전문대학원 석사동창회	AMP 70기	회계발전기금
이진범(경제 94)	정정호(경제 67)	MBA 총동창회		경영전문대학원 여성동창회	AMP 71기	
이진원(경영 85)	정주용(경제 70)	YSB A/S 특강 참가자	아모레퍼시픽	재연덕수상고	AMP 72기	1억 원 이상
이찬형(경영 69)	정찬구(MBA 2001)	경영 60학번 동기회			AMP 총동창회	삼일회계법인
이창주(경영 87)	정택진(경영 81)	경영 61학번 동기회	1천만 원 이상	GS건설	MBA 78대 원우회	
이창현(경영 93)	정희철(경영 85)	상경대학 동창회	강호찬(경영 97)	LG전자	경영전문대학원 연구동창회	5백만 원 미만
이태우(경영 10)	조길용(AMP 13기)	연경산우회	고은봉(경영 66)	SK텔레콤		이종은
이필수(MBA 2001)	조석준(MBA 2008)		고한수(경영 70)	다음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아이엑스엘코리아	
이학렬(경영 72)	조성연(MBA 2006)	가산의료재단광동한방병원	구본걸(경영 76)	대정장학회	하나은행	
이해원(MBA 2005)	조성우	대우가스보일러	권오국(AMP 65기)	라인플러스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세계경영트랙 발전기금
이현로(경영 65)	조성출(경영 91)	동양종합금융증권	김경배(경영 83)	롯데쇼핑		
임근구(경영 86)	조영욱(경영 87)	명화네트	김낙찬(AMP 67기)	미래에셋증권	5백만 원 미만	1천만 원 이상
임병훈(경영 86)	진선근(경영 92)	주식회사 케이에스엠	김성찬(석사 98)	삼성전자	김대균(경영 87)	노키아
임복순(경영 75)	진용균(경영 69)	천호식품	김영호(AMP 52기)	선등문화장학재단	김병배(경영 70)	
임소연(경영 98)	차현덕(경영 69)	케이디파워	김용운(AMP 16기)	성주재단	김보성(경영 97)	5백만 원 이상
임수진(경영 92)	채성수(MBA 2013)	코스닥라인	김창수(경영 81)	시몬느	김용현(경영 02)	최순규 교수
임양록(경영 91)	최거현(경영 97)	한림마린서비스	김학수(경영 71)	신한은행	노근현(경영 06)	
임용순(법학 85)	최광룡(AMP 52기)	한림티앤씨	라제훈(경영 69)	아산나눔재단	도원식(경영 06)	한국안센
임인순(경영 83)	최금화(MBA 2008)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서창우(경영 78)	에스비에스아이	안종현(경영 75)	
임종건	최병우(경영 61)		손석우(경영 83)	우리은행	염기현(경영 75)	5백만 원 미만
장경덕(AMP 66기)	최병해(경영 94)		신용한(경영 88)	웅진씽크빅	유기성(경영 06)	박명렬 교수
장석조(경영 85)	최승준(경정대학원 2007)	장학자원 기금	안용찬(경영 77)	이마트	이원규(경영 75)	한국쓰리엠
장순국(경영 83)	최영준(상학 64)		오광성(경영 71)	일진전기	전용환(경영 06)	
장영현(경영 90)	최인우(MBA 2000)	5억 원 이상	이경미 교수	장금상선	정태환(경영 75)	
장유호(MBA 1989)	최일명(경영 96)	심장식(경영 73)	이두철(AMP 38기)	천일서암장학재단	지신상(경영 75)	경영대학 동아리(YIG) 후원금
장지수(응통 86)	최재범(경영 90)		이재익(경영 69)	코오롱글로벌		
장현수(경제 84)	추연옥(경영 93)	연경장학회	이정익(AMP 22기)	코오롱인더스트리	AMP 61기	5백만 원 미만
전용환(경영 06)	한상현(경영 88)		장홍선(경영 58)	코오롱인더스트리 FrC부문	AMP 63기	김태환(경영 05)
전철희(경영 86)	한영일(경제 66)	1억 원 이상	전찬민(경영 86)	테일러벨스소프레스코리아	AMP 75기 2반	손지웅(경영 05)
정기성(경제 05)	한유(상학 60)	김영진(경영 75)	정용화(경영 66)	패션그룹형지		
정기환(AMP 50기)	한인철 교수	김정수(경영 69)	조우제(경영 94)	포스코경영연구소	China Daily Asia Pacific Limited	동부문화재단
정동학(상학 65)	한충섭(경영 88)	최희규(경영 83)	한영재(경영 73)	하이드로젠파워	ING 생명보험	연합인포맥스
정만원(경영 70)	한현주(석사 05)		한태식(경영 61)	하이마트	외환선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정민지(경영 03)	허과현(MBA 1976)	AMP 67기	황병주(AMP 22기)	한국산업은행	외환펀드서비스	
정병수 직원	허용석(경영 76)	경영전문대학원 총동창회		한국수출입은행		
정성규(AMP 70기)	허찬희(경영 83)		AMP 53기	한일재단	하나SK카드	경영학과재무분야 발전기금
정성래(경영 84)	홍경희(MBA 2006)	Dept. of veterans affairs	AMP 54기	현대증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성원(경영 88)	홍득기(경영 87)	이랜드월드	AMP 55기		하나금융지주	5백만 원 미만
정성호(경영 91)	홍석주(경영 85)	주한사우디아라비아영국대사관	AMP 56기	5백만 원 이상	하나다울신탁	성용훈(경영 00)
정세연(경제 86)	홍재호(MBA 1970)		AMP 57기	김경휘(경영 83)	하나다울자산운용	
정수원(경영 70)	홍창희(경영 86)	5천만 원 이상	AMP 골프회	박재돈(AMP 53기)	하나대투증권	
정연성(식생활 80)	황석연(경영 87)	구재상(경영 83)	EMBA 3기	박전택(경영 86)	하나생명	

Class Gift 2011	손정균(경영 05)	최성욱(경영 05)	강현명	박성조	이동욱	최승빈	노근현(경영 06)
	송권영(경영 04)	최수희(경영 06)	고형석	박성주	이동준	최우일	문기성(경영 04)
학부	송수길(경영 07)	최신(경영 02)	권윤선	박수범	이민아	최우제	박경찬(경영 06)
강지윤(경영 06)	송연화(경영 06)	최영우(경영 02)	권정민	박영호	이병진	탁연정	박기영(경영 04)
고양중(경영 02)	송재혁(경영 03)	최지은(경영 05)	금우현	박원준	이상우	한경호	박기홍(경영 04)
권오승(경영 03)	송현석(경영 03)	최혜림(경영 07)	김경훈	박은주	이상원	한덕연	박성수(경영 04)
김균(경영 04)	심규환(경영 05)	하재성(경영 03)	김규진	박장규	이상현	한승준	박수정(경영 05)
김동욱(경영 03)	심요한(경영 04)	하진규(경영 04)	김기해	박준석	이생재	허민희	박종필(경영 04)
김득훈(경영 07)	양우현(경영 04)	한재웅(경영 04)	김기현	박지원	이성민	허용	박준영(경영 04)
김맑음(경영 05)	왕태영(경영 04)	현예슬(경영 06)	김기호	박진형	이소라	하준	박준호(경영 05)
김민지(경영 04)	우영균(경영 04)	홍세화(경영 07)	김나리	박현우	이연학	황경곤	박지수(경영 07)
김민재(경영 04)	유원석(경영 07)	홍유빈(경영 07)	김남기	박홍식	이영상	황병필	박찬민(경영 04)
김범준(경영 02)	유정민(경영 04)	황철상(경영 02)	김대현	백선행	이영신	황일환	박철오(경영 08)
김수범(경영 04)	유진무(경영 04)		김도균	백성현	이이진		박태준(경영 04)
김수정(경영 06)	이강석(경영 07)	석박사	김동길	백용해	이장훈		박해수(경영 07)
김영익(경영 03)	이민형(경영 03)	구현정(석사 09)	김미완	사철기	이재민	Class Gift 2012	박현규(경영 04)
김영준(경영 04)	이영준(경영 04)	김상일(박사 07)	김민	서윤지	이정득		박현지(경영 07)
김유석(경영 06)	이유안(경영 05)	김영대(박사 03)	김상윤	서재식	이정숙	학부	백성희(경영 07)
김옥렬(경영 03)	이의철(경영 05)	김지연(석사 09)	김선배	석상규	이종성	강성협(경영 05)	백운도(경영 03)
김윤진(경영 06)	이종원(경영 05)	라미령(석사 08)	김선영	성대형	이진일	강진우(경영 04)	변정윤(경영 07)
김은용(경영 04)	이지수(경영 05)	리은경(석사 09)	김선웅	성백준	이철	강창희(경영 07)	서원교(경영 04)
김은우(경영 06)	이지혜(경영 06)	모배권(석사 06)	김성준	손호균	이태연	고경진(경영 05)	서정원(경영 05)
김인애(경영 04)	이한솔(경영 03)	박주진(석사 09)	김성준	송경희	이태호	고경환(경영 04)	손소현(경영 06)
김일우(경영 04)	이호원(경영 03)	박태훈(석사 09)	김성환	송호진	이형규	곽은영(경영 05)	송민지(경영 08)
김재혁(경영 03)	이홍렬(경영 03)	옥지웅(석사 07)	김수환	신민승	이홍준	김경태(경영 02)	송승아(경영 05)
김진우(경영 06)	이황신(경영 04)	유성훈(석사 05)	김응수	신봉규	임계영	김도형(경영 05)	송유경(경영 05)
김철웅(경영 03)	이훈성(경영 04)	윤영수(박사 03)	김재환	신원정	임동수	김동주(경영 04)	송인성(경영 04)
김택균(경영 03)	이힘찬(경영 04)	이기현(박사 07)	김정훈	신종선	임선아	김동훈(경영 04)	송재원(경영 08)
김현선(경영 05)	임동섭(경영 04)	이아현(석사 09)	김중수	신진섭	장은정	김민우(경영 08)	송정윤(경영 03)
김형규(경영 04)	임승혁(경영 04)	이은곤(박사 05)	김주관	신진호	장재영	김상일(경영 03)	송지섭(경영 05)
노우성(경영 03)	임영룡(경영 04)	이재성(석사 09)	김주연	심성후	장희영	김시현(경영 03)	신단비(경영 08)
민경실(경영 06)	임현정(경영 04)	이정환(석사 08)	김지수	안영열	정우열	김우아(경영 07)	신정우(경영 05)
민윤홍(경영 02)	장수현(경영 06)	이청열(석사 09)	김진규	양원진	정의선	김정기(경영 04)	신채은(경영 05)
박경홍(경영 03)	장재현(경영 03)	임명서(박사 08)	김태형	양지훈	정재웅	김정명(경영 03)	심영보(경영 04)
박래현(경영 03)	장한내(경영 05)	장운욱(박사 05)	김태환	엄명섭	정재형	김준효(경영 08)	안동신(경영 04)
박승환(경영 04)	정다운(경영 03)	정슬기(석사 08)	김태훈	오승엽	정재훈	김지은(경영 05)	안정수(경영 05)
박영진(경영 01)	정상용(경영 05)	정승원(석사 09)	김호용	오우진	정창현	김지혜(경영 06)	안진아(경영 06)
박정민(경영 06)	정선오(경영 05)	조경엽(박사 01)	남민석	오장환	정현수	김태정(경영 04)	양성수(경영 04)
박진수(경영 06)	정지수(경영 05)	채연주(박사 04)	문경신	오태엽	조영상	김태혁(경영 04)	양희원(경영 05)
박현식(경영 05)	조경호(경영 03)	황미진(박사 05)	문선영	원경연	조영수	김현우(경영 04)	염지현(경영 06)
박해민(경영 07)	조성제(경영 05)	황용희(박사 04)	문희정	원영웅	조지연	김현준(경영 05)	오대해(경영 06)
백영민(경영 04)	주선경(경영 03)		민경의	유수경	조혜련	김형준(경영 04)	오명석(경영 05)
서유호(경영 03)	진두환(경영 04)	MBA 2009	박경준	유영길	진태원	김혜연(경영 07)	오영환(경영 03)
서정화(경영 01)	진시문(경영 07)	Ariunbold Gombojav	박민숙	윤석주	차정희	김확렬(경영 08)	윤승철(경영 02)
서진(경영 06)	차문수(경영 01)	강민정	박상언	이경범	최기호	남상덕(경영 03)	유기영(경영 07)
서진영(경영 03)	차우석(경영 04)	강민정	박석환	이경주	최서룡	남윤승(경영 04)	유재준(경영 06)
손인석(경영 03)	차은경(경영 06)	강선자	박성용	이남진	최석훈	노가영(경영 06)	윤석기(경영 05)

윤승인(경영 03)	조은지(경영 08)	김성택	이민석	Class Gift 2013	이다미(경영 08)	표현상(박사 09)	이재은	김맑음(경영 05)
윤주형(경영 04)	조인혁(경영 08)	김성호	이수영		이동현(경영 09)	이재현	이재현	김민수(경영 08)
윤지현(경영 07)	조항영(경영 06)	김수한	이슬기		학부	이상정(경영 06)	MBA 2011	이정호
이강욱(경영 05)	주민서(경영 04)	김영건	이용권		강미나(경영 09)	이세종(경영 04)	강우석	이정환
이경원(경영 04)	진수정(경영 07)	김영근	이용희		강수민(경영 09)	이승연(경영 08)	강지선	이준혁
이광용(경영 04)	채종민(경영 04)	김용식	이은경		권경환(경영 05)	이용진(경영 06)	계승효	이지은
이광희(경영 05)	최보민(경영 08)	김용태	이재범		권대웅(경영 05)	이원우(경영 06)	고광수	이지현
이동욱(경영 04)	최영은(경영 07)	김은경	이종근		권유경(경영 08)	이재명(경영 06)	권경미	이진영
이슬(경영 07)	최유진(경영 05)	김인규	이종현		김대훈(경영 04)	이지혁(경영 08)	김동욱	이창선
이영선(경영 05)	최재현(경영 03)	김재완	이주리		김동민(경영 09)	이태현(경영 05)	김미혜	이창주
이예솔(경영 07)	최지혜(경영 08)	김정환	이준명		김동완(경영 04)	이형준(경영 06)	김민선	이창희
이원재(경영 07)	최혜선(경영 08)	김종환	이진석		김동우(경영 04)	임슬기(경영 08)	김상연	이필성
이유진(경영 05)	최홍석(경영 05)	김진갑	임규원		김동현(경영 05)	임승진(경영 05)	김성원	이행근
이재형(경영 04)	허은희(경영 04)	김진숙	임섭	김미나(경영 08)	장웅근(경영 06)	김수	이현주	
이정민(경영 07)	허준(경영 04)	김진숙	장정순	김범수(경영 05)	장원재(경영 06)	김수정	이호원	
이정환(경영 05)	현지은(경영 07)	김창근	전성미	김상우(경영 05)	전수환(경영 06)	김수현	이희재	
이정훈(경영 05)	홍성은(경영 07)	김창형	정갑수	김상우(경영 06)	전준호(경영 05)	김재범	임원배	
이지인(경영 06)		김태승	정보근	김상준(경영 04)	조예진(경영 09)	김정민	장은석	
이태현(경영 06)	석박사	김한준	정석찬	김성진(경영 02)	조준혁(경영 05)	김종진	정두섭	
이한(경영 04)	김기수(석사 10)	문웅상	정성락	김성현(경영 04)	조창인(경영 05)	김준석	정해창	
임그린(경영 07)	김혜미(석사 10)	박석돈	정양오	김유나(경영 08)	최경희(경영 08)	김태범	조민	
임상은(경영 07)	김홍(박사 08)	박영웅	정의현	김유진(경영 09)	최동찬(경영 06)	김태성	조성애	
임상혁(경영 04)	송성애(석사 10)	박일동	정재학	김준희(경영 06)	최미영(경영 08)	김태훈	조성우	
임철성(경영 04)	신현준(석사 10)	박중원	정한길	김태환(경영 04)	최원영(경영 08)	김현욱	주응열	
임현민(경영 05)	이경화(석사 10)	박춘홍	제희원	도영우(경영 03)	최주영(경영 05)	나호섭	진수경	
장미리(경영 05)	이길태(석사 10)	백상현	조용진	명종환(경영 05)	허경주(경영 06)	류근선	한세웅	
장세경(경영 07)	이원석(석사 10)	변현근	조인식	모희(경영 09)	현진성(경영 06)	류성현	한승우	
장수찬(경영 07)	이철원(석사 07)	서보희	조태연	민재원(경영 08)	홍준기(경영 05)	민기식	허명진	
장은지(경영 05)	정기우(박사 08)	손기영	채희경	박극렬(경영 10)	황인애(경영 05)	박경택	허은숙	
장재웅(경영 05)	조효배(석사 09)	손기종	최동완	박보미(경영 07)	황필순(경영 04)	박광인	허정주	
장해림(경영 08)	진 해(석사 10)	손원형	최인실	박주홍(경영 06)		박현창	홍지은	
전미선(경영 05)	채수준(박사 09)	송영구	최준환	박현재(경영 08)	석박사	변윤상	황성은	
전범준(경영 02)		안병욱	최현식	방현준(경영 05)	고옥결(석사 11)	서시연	황유지	
전웅배(경영 05)	MBA 2010	안정진	하인호	배인해(경영 07)	박상용(석사 11)	송승룡	황의진	
정미홍(경영 07)	Leif Karlen	양주윤	한기암	배현성(경영 09)	배창현(석사 11)	송진현		
정원조(경영 03)	강민석	오영우	한인섭	서석원(경영 07)	서금희(석사 08)	신나라	MBA 2010	
정자현(경영 05)	강성준	원종규	홍순기	서윤지(경영 07)	요범(석사 11)	신현우	고진배	
정재욱(경영 05)	강천기	유성원	황지원	서정윤(경영 08)	유정민(박사 09)	안기종	이윤희	
정지원(경영 05)	고병운	유태인		송지영(경영 08)	유혜영(박사 09)	오세규		
정진엽(경영 04)	고석환	윤덕수	MBA 2007	신재승(경영 05)	이미리(석사 10)	유준수		
정혜승(경영 08)	권광호	윤법렬	송주호	신희웅(경영 05)	이종민(석사 11)	윤재웅	Class Gift 2014	
조선영(경영 07)	권영윤	윤치영		심정훈(경영 06)	정은경(석사 11)	윤현진	학부	
조성규(경영 04)	김대철	이건학	MBA 2008	안자인(경영 09)	정현기(박사 09)	이강복	강건(경영 08)	
조승우(경영 08)	김대현	이관우	장기호	양준영(경영 08)	조재현(석사 11)	이동엽	이서영(경영 10)	
조용준(경영 03)	김동수	이국성		오윤영(경영 08)	조정은(박사 09)	이득흔	강한수(경영 06)	
조용호(경영 07)	김상순	이동우		오효석(경영 08)	최우담(석사 11)	이용서	관명(경영 09)	
조웅(경영 07)	김성열	이동훈		이강휘(경영 05)	최종철(박사 09)	이은행	김나정(경영 09)	

이승환(경영 04)	석박사	배상현	MBA 2008	박현준(경영 07)	정지훈(경영 09)	정유진(석사 10)	이숙희
이영실(경영 08)	강경선(석사 11)	서정욱	박병현	박혜나(경영 10)	정태우(경영 07)	최혜영(석사 12)	이영숙
이요한(경영 10)	김자영(석사 11)	심형섭	유희열	백두산(경영 08)	조동갑(경영 06)	MBA 2006	이재일
이윤석(경영 04)	김지연(석사 11)	안보경		백현우(경영 08)	조상현(경영 07)	오윤지	이정민
이은일(경영 09)	나함(석사 11)	안상현	AMP 2008	서덕해(경영 07)	조우용(경영 08)		이정열
이인엽(경영 07)	박순채(박사 05)	안승준	이은희	서석만(경영 07)	조택림(경영 10)	MBA 2011	이준석
이장훈(경영 07)	서근영(박사 10)	양일수		서정선(경영 08)	조희곤(경영 09)	장동준	이준영
이정현(경영 10)	석미옥(석사 11)	양재훈		서하나(경영 10)	지인배(경영 07)		이진원
이정훈(경영 07)	양영수(박사 09)	연규선	Class Gift 2015	성현석(경영 06)	차수정(경영 10)	MBA 2012	이충진
이준연(경영 09)	이가림(박사 10)	오병성	학부	소윤주(경영 11)	차주연(경영 09)	문고운	이태훈
이준원(경영 07)	이지숙(박사 08)	오신영	강모정(경영 07)	송미선(경영 09)	최근호(경영 08)	임병채	이현미
이지애(경영 09)	장권(박사 09)	오혜영	강민주(경영 08)	송지현(경영 09)	최석훈(경영 06)	정서진	이효진
이혁주(경영 06)	초옥(석사 11)	윤창민	강선유(경영 10)	신승환(경영 07)	최예슬(경영 08)		임덕만
이현주(경영 08)	최성호(석사 12)	이강남	강지현(경영 11)	신영호(경영 06)	최윤호(경영 06)	MBA 2013	임숙현
이혜진(경영 09)	표경민(박사 10)	이상현	고병수(경영 09)	안성준(경영 06)	최은비(경영 10)	Deng Shibei	임진아
이호준(경영 05)	Hsu Mon Yee(석사 11)	이상훈	곽민우(경영 05)	안유정(경영 10)	하솔매(경영 07)	NITCHAMAN	장현호
임유나(경영 09)	Lixia	이신호	곽수지(경영 11)	안채린(경영 14)	한해성(경영 07)	THANAWAN	정기선
임준혁(경영 06)		이영진	권미정(경영 11)	엄민지(경영 10)	함민석(경영 06)	고지혜	정해승
임진우(경영 07)	MBA 2012	이인재	권예슬(경영 10)	오정환(경영 07)	허이슬(경영 09)	권성달	조문진
임홍섭(경영 08)	강순석	이정훈A	김광노(경영 07)	왕미나(경영 09)	허준(경영 08)	권지영	조민재
장순규(경영 06)	고인홍	이정훈B	김명열(경영 06)	우승현(경영 14)	허준영(경영 07)	김기환	조상현
장영진(경영 09)	고한규	이창원	김명열(경영 06)	원창희(경영 07)	홍미진(경영 11)	김길주	지영인
전용환(경영 08)	구경영	이해리	김민준A(경영 07)	위현복(경영 10)	홍정민(경영 10)	김동한	채미경
전유진(경영 07)	권정훈	이호철	김민준B(경영 07)	유승협(경영 11)	황동매(경영 11)	김미정	채정은
전은상(경영 10)	기응수	임신욱	김보라(경영 11)	윤새결(경영 08)	황재성(경영 07)	김상원	한승민
전철호(경영 06)	김강정	전민형	김상수(경영 09)	윤소정(경영 10)	황준우(경영 07)	김소연	한진선
정노윤(경영 08)	김낙균	전종웅	김성훈(경영 06)	이경진(경영 08)		김임환	함현수
정유정(경영 07)	김미영	전행욱	김소담(경영 10)	이규원(경영 10)	석박사	김진규	홍원선
정재광(경영 07)	김상일	정기호	김소혜(경영 10)	이민경(경영 11)	JINCHUNYU(석사 13)	김현진	황원근
정종성(경영 06)	김성주	정민정	김승현(경영 10)	이상보(경영 08)	Liu enyu(석사 11)	박병찬	
정준호(경영 06)	김성현	정재민	김예진(경영 11)	이상윤(경영 08)	강혜민(석사 13)	박지명	MBA 2014
정현중(경영 05)	김우식	정진호	김예진(경영 11)	이소영(경영 11)	고민정(박사 08)	박현우	이병우
조은석(경영 07)	김정호	조성환	김은애(경영 09)	이슬비(경영 10)	권성복(석사 12)	배현	이상원
지인희(경영 06)	김지나	주민규	김정주(경영 07)	이승연(경영 08)	김도연(박사 01)	백연희	황현실
차지윤(경영 07)	김지현	최종훈	김준연(경영 08)	이예준(경영 11)	김태곤(석사 12)	변대기	
채예린(경영 05)	김진형	최중의	김지혜(경영 08)	이주나(경영 10)	김현준(석사 13)	성제현	
최고운(경영 06)	김태균	최현숙	김현지(경영 10)	이주목(경영 09)	마몽실(석사 13)	신남선	120만원 5,000명
최고은(경영 10)	김현규	한성훈	김형준(경영 09)	이지윤(경영 10)	박상우(석사 12)	신현수	연세경영 사랑 캠페인
최보윤(경영 08)	김현호		김홍준(경영 08)	이채영(경영 11)	박성준(석사 12)	심영민	
최승용(경영 09)	남상직	MBA 2011	나명해(경영 09)	이호선(경영 05)	배미옥(석사 11)	오명대	상과 42
최윤석(경영 06)	노석진	김기태	노승오(경영 08)	이호린(경영 10)	배영범(석사 13)	유정윤	탁연택
최정민(경영 06)	노현승	류건형	노혁인(경영 09)	이효직(경영 14)	변정윤(석사 13)	유주리	상학 50
최진우(경영 05)	박남수	유혜진	박기범(경영 07)	전한솔(경영 09)	유효맹(석사 11)	이경임	故황일청
하주영(경영 09)	박성준	이상일	박시영(경영 09)	전호인(경영 09)	이성훈(석사 12)	이기환	
허규범(경영 07)	박정우		박재범(경영 07)	정민경(경영 10)	이수희(석사 11)	이석호	상학 52
홍윤기(경영 08)	박희갑	MBA 2009	박주희(경영 09)	정샘나(경영 09)	임단화(석사 09)	이성규	노장호
홍주영(경영 08)	박희열	정지웅	박지원(경영 11)	정세연(경영 10)	정언태(석사 11)	이성훈	김태환

상학 55	최영준	김정완	경영 69	박영인	박혜영	정일영	이경하	이상현
김성수		김중성	김성운	윤여철	송한은	조석일	故이문규	이승현
송자	상학 65	김호용	남상만	이병규	안종현	최종학	이진모	임춘수
	금중갑	선우영석	노병용	이수연	윤보현	허용석	임중환	정택진
상학 56	백봉학	신무범	박상용	이종우	윤재성		정현호	주재진
김동희	신승훈	정의웅	박영진	이학렬	이명섭	경영 77	지상돈	지민호
김학수	심재혁		박태원	임주재(3)	이용복	강병천(10)		함중욱
임달재		경영 64	신동성		이원규	김만수	경영 79	홍태호
	상학 66	고병헌	이석구	경영 73	조용우	김세환	김근수	황재훈
상학 59	권재석	권국주	이승렬	김광우	지신상	김용선	김길수	김길수
김진태		김용구	이종달	박헌준	한창직	김찬귀	김동훈	경영 82
	상학 67	서요원	이찬형	육근만		김태정	[자 김희선]	강원
상학 60	김준석	이동헌		이경호	경영 76	김형국	신동엽	고진훈
안택수	신문영		경영 70	이정조	권승화(5)	나원찬	신성호	구호림
[자 안소은(체교 92)]	이명우	경영 65	권승희	한영재	김남권	민홍식(5)	신수용	[자 구주형]
[사위 차창훈(정외 85)]	이상현	권응구	김병배		김대희	신희호	이성훈	김건하
	이재찬	김내영	김병순	경영 74	김상진(5)	오영식	채목호	김상헌
상학 61		김형욱	김영수	김민석	김화중(2)	유창조	한봉수	김재호
오세철	상학 68	김홍식	김인구	김세진	노재명	윤경식	허인철	민지홍
이결	경규학	성낙성	김채전	김수길	박기완	이강원		박상현
		최웅	배호원	문석진	박영렬	이득영	경영 80	박정서
상학 62	경영 58		신종식	박종희	저 이민숙	이상문(20)	강성암	실진영
강정일	유금영	경영 66	이광우	윤만호	자 박신옥	이유승	고일상	윤석원
		고은봉	이주열	윤세준	자 박기동	이종성	김동진	윤영수
상학 63	경영 59	김세영	정수원(2)	윤종만	부 박근호	이철규	김명철	이병남
권혁무	김영일	박원희	정준석	이강만	모 오영순	정원식	김선현	이영근
김용정	송태연	유현규		이정주	숙부 박근태(사학 73)	조정제	김재오	임건신
신완	이장희	이전갑	경영 71	전기석	장인故이해경	추승문	김종배	임재만
오종곡	장영용	전명식	강성룡	차재호(2)	장모 안옥경	하연찬	김진우	정석준
이경훈		정용화	강세영		지도교수 Jean-	허재성	박영암	차승훈(3)
이종민	경영 60	홍영건	구분창	경영 75	Francois Hennart	홍덕표	박형건(10)	
전수남	서신덕		김학수	권구혁	백성욱	홍종국	심동욱	경영 83
홍사영		경영 67	민총식	김규명(10)	송승철(10)		윤상우	강동훈
황화숙	경영 61	박원규	백우석(3)	김대열(10)	안병덕	경영 78	이영면	강승렬(4)
	심중섭	안관석	서동욱	[자 김민지(2)(경영05)]	양인규	김관호	진형보	강윤석
상학 64	이광호	안종원	오광성	김도성	양재담	김기한	최민	강태욱
김순규	임세근	이광주	오세조	김성욱	우덕기(3)	김성택		곽대웅
김창성	한상신	주인기	이기주	김영준	윤성일	김영현	경영 81	구재상
민영우	한태식	황한택	이희정	김영진	이석근	노전표	권성문	김경창
변정수			임재동	김진성	이석진	박대순	김만동	김광오
유희동	경영 62	경영 68	최홍식	김홍기	이선호	박종천	김용원	김동진
[처 김동숙(상학 64)]	강봉섭	박범구	함창용	문종진	이승하	서창우	김재우	김두홍
이승일	최경희	유홍덕	박노승	이영태	손성규	김창수	김창수	김상돈
이우찬		이민상	경영 72	박성오	이우열	손중배	박태근	김정국
이종구	경영 63	이장열	김익찬	박용준	이재능	송성용	서경배	김진호
정영우	김명준	조남준	김태현	박종목	이진국	유상호(2)	이동진	김학진
정철호	김용록	민경춘	박창언	정수원	유해성		이병취	박규홍

박종길	송기홍	김대균	석명기	박성배	박주언	경영 03	경영 06	장수현
박진호	유희운	김상호	송정선	박승철	이승훈	김선주	강석진	정민경
배규태	윤강훈	김성민	이국현	박준석		박수진	김은우	홍윤지
변진호	이원섭	김성호	이법진	송상철(2)	경영 97	송재혁	남성은	
송인수	이재모	박영웅	정창기	심태호	이병로	신재현	민성환	경영 11
안교림		박희영	정철원	윤대희	이영호	안종섭	박재한	구현모
안정태	경영 85	백인규	조창호	이도신		양승운	유재준	이준환(2)
양홍규	김명규	신원준		정진승	경영 98	오승준	윤서희	이지영
염승섭	김용배	안창일	경영 90	진성백	이대형	이경희	장원재	정민영
오기호	김점표	엄태호	김진호	채영은	이용석	이종민	한정훈	조민기
오동익	류승권	윤종철	남명우	최형석		이철영		진수황
오무경	박종성	이무원	류재영	한종엽	경영 99	최현정	경영 07	최홍준
오승원	백창현	이민복	박길우		구대회	한정호	강모정	
윤석영	송인걸	이상도	박성조	경영 93	김준하		김종서	경영 12
이강섭	오종현	이상철	박세범	고연기	안우철	경영 04	김현국	김경현
이길우	윤형근	이영신	박용근	김승훈	안재현	고현진	서윤지	박정현
이길호	이강석	장재선	박재관	김율리		김경희	손진영	이미지
이동욱	이규홍	홍득기	신승철	김준원	경영 00	김민지	송훈희	
이두원(2)	이승철	황석연	유병문	김진원	김세래	김일우	오유정	경영 13
이세훈	장석조		이동현	박정민	박은경	김정기	유민석	강효원
이용희	전성기	경영 88	최국주	배성주	양덕우	박선영	홍유빈	이대영
이재용(2)	정영한	강승완	최재범	서백영	조필숙	박성수		이재진
이준규	정형권	강윤구	허진	엄기출	지상현	성정은	경영 08	[모 최영희]
이지만	조웅기(10)	김병목		이범탁	현상재	엄수진	최근호	
임일순		김승환	경영 91	이성재	유준범	유준범	최보윤	경영 14
임재현	경영 86	김연봉	강승수	익명(4)	이영준	이영준		김도연
전영목	김상운	김태동	기대웅		방동환	장수진	경영 09	김세윤
정석영	김성래	문승식	김석현	경영 94	조기람	정대영	김규복	신동민
조기환	남인봉	박상원	김윤희	김지현	조나은	정세린	김유진	우승현
최민수	도현수	박성호	김현중	박기현	정현용		리은경	유형석
최희규	민순홍	배운환	박상욱	오영석	최봉림	경영 05	백민철	이인기
한신규	박대준	변영훈	서동우	오치훈		곽한결	심명규	한우림
한정희	안승환	서현택	송정우	이규화	경영 02	김동현	육창환	황유경
허광식	위진오	신택수	심상학	장우철	강익철	김필수	정경훈	
허찬희	윤기연	유인상	오종진	장현준	[처 김경진(경영 05)]	박형민	조희곤	박사 94
황성호	이동호	이동원	이영한	조주현	김경하	송주현	최예지	김경찬
	이병희	이상목	이정훈		김덕산	신재승	[부 최윤건]	
경영 84	이재석	이한선	이창규	경영 95	박준범	유재영	홍성식	박사 95
금정호	임근구	정연택	정삼선	강호찬	송보미	이영민		손용민
김덕수	임병훈	[처 문희]		정예림	송윤미	이의석	경영 10	
김영범	임승대	한상현	경영 92		[부 정창현]	안다연	이태현	박사 99
김훈	전철희		김덕식	[이모 박민숙]	염규현	장재웅	김영익	김창도
박광우	주진철	경영 89	김경구	정재영	이경선	전준호	김태영	
박광춘	홍수진	강상욱	김정화		이기환	조윤경	김태준	박사 00
박승안		김태성	김형기	경영 96	이길우	조한진	박재현	오원정
박태원	경영 87	김해룡	남상민	김승현	이준규	최석훈	손채문	
서진석	강세종	박상은	류성무	김영태	홍순준	이승은		



디딤돌

연세경영 역사 속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경영관

경영관 신축의 디딤돌이 되어 주신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액자를 드립니다.

지난 100년 연세경영은
이 사회의 Leader를 양성했습니다.

미래 100년 연세경영은 새로운 터전 경영관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Innovator를 양성하겠습니다.

연세경영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분들을
가슴 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연세경영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모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경영관 신축의 디딤돌입니다.
캠페인에 5구좌 이상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이 액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YONSEI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 +82-2-2123-5445 Fax : +82-2-2123-8639

Homepage : <http://ysb.yonsei.ac.kr>